



www.jarip.or.kr

2014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보고서



# 2014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보고서



# 2014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보고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1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Tel. 02-715-4634~5 Fax. 02-715-4636 Email\_jarip@kohi.or.kr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4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보고서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결과보고서입니다.

책임연구원 :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단장)

연구원 : 주보라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연구원)

보조연구원 : 김예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보조연구원)

# Contents

2014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보고서



## I.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8
2. 사업방법	10
가. 사업진행과정	10
나. 사업추진체계	12
3. 주요사업내용	13
가. 사업기간	13
나. 사업대상	13
다. 사업내용	13

## II.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

1. 지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16
가. 지역선정	16
나. 대상자 선정	17
2. 투입인력	19
3. 사업일정별 수행현황	20
가. 전달식 및 워크숍	21
나. 자립정착금 지원	22
다. 사례관리 및 지역모임	23
라. 사례회의 및 교육	26

## III. 시범사업 결과

1. 개요	30
가. 조사개요	30
나. 측정도구	30
2. 시범사업 참여자 특성	31
가. 일반적 특성	31
나. 원가족 여부 및 관계	33
다. 경제상황	35
라. 시범사업 당시 상황	38



3. 시범사업 효과성에 대한 양적평가	40
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따른 실제 지출액 비교	40
나. 사전사후 자립도 비교	48
다. 사전사후 심리정서 비교	54
라. 사전사후 소비성향 비교	59
마. 교육 및 전체만족도	61
바. 시범사업 전체만족도	67
4. 시범사업 효과성에 대한 질적평가	71
가. 사례분석	71
나. 심층인터뷰	75
다. 아동행동평가	84

## IV. 시범사업 평가

1. 사업성과	90
2. 향후과제	91

[참고문헌]	93
--------	----

[부록] 시범사업 관련자료	95
----------------	----





#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사업방법
  - 가. 사업진행과정
  - 나. 사업추진체계
3. 주요사업내용
  - 가. 사업기간
  - 나. 사업대상
  - 다. 사업내용

# 1. 시범사업의 개요

지 꾸준히 자립지원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원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영향을 받아 자립정착금 지원제도가 미비하다.

자립정착금이 미비한 지역 내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과 더불어 지급방식 및 사례관리의 부재 등으로 인한 오남용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립실현을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9개 지역의 보호종결아동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중앙 사업단과 지역 사례관리자 간의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정착금의 오남용 문제를 보완한다.

셋째, 자립정착금 지원과 꾸준한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통해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종결아동의 자립필요항목을 파악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의 확산 및 운영개선에 도움을 준다.

## 1.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은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을 때에 퇴소 또는 위탁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후 보호종결아동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자립정착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sup>1)</sup> 이후 2000년까지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생활자금(생업자금) 조항이 추가되며 당시 자립정착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며, 보조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부하거나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이 상이하였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책임이 상호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05년 자립정착금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고 '12년도 가정위탁보호아동이 보호대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을 3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상이하며, 심지어 자립정착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시도와 보호체계도 있다.

2013년도 지방 재정자립도의 전국평균은 51.1%로 전체 지자체 중 절반 가까이가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981년 생업자금<sup>2)</sup>부터 지금의 자립정착금에 이르기까

1) 1981년 아동복지법 “제27조 제4호 아동의 보호 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 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조항 추가

2) 1981년 아동복지법 제27조 제4호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 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급조항이 추가.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며, 보조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부하거나 반납(1982년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

## 2. 사업방법

### 가. 사업진행과정

다음의 <표 1-1>는 초기 시범사업 진행 시 시도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자립정착금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양육시설에서는 전체 17개 시도가 100% 지원하고 있었고,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에서는 10개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중 강원지역은 2개의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가정위탁은 8개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중 경기지역은 시군별로 예산이 확보된 시군구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이 중 2014년 자립정착금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응답한 제주 및 대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으로 총 9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 1-1> 2013년도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육시설	500	300	300	500	400	300	500	500	500	100	500	500	300	300	500	300	300
공동생활과정	500	300	300	500	400	-	500	-	500	300 시군별	500	-*	300	-	-	-	-
가정위탁	500	300	-	100	100	-	500	-	시군별	-	500	-	-	-	-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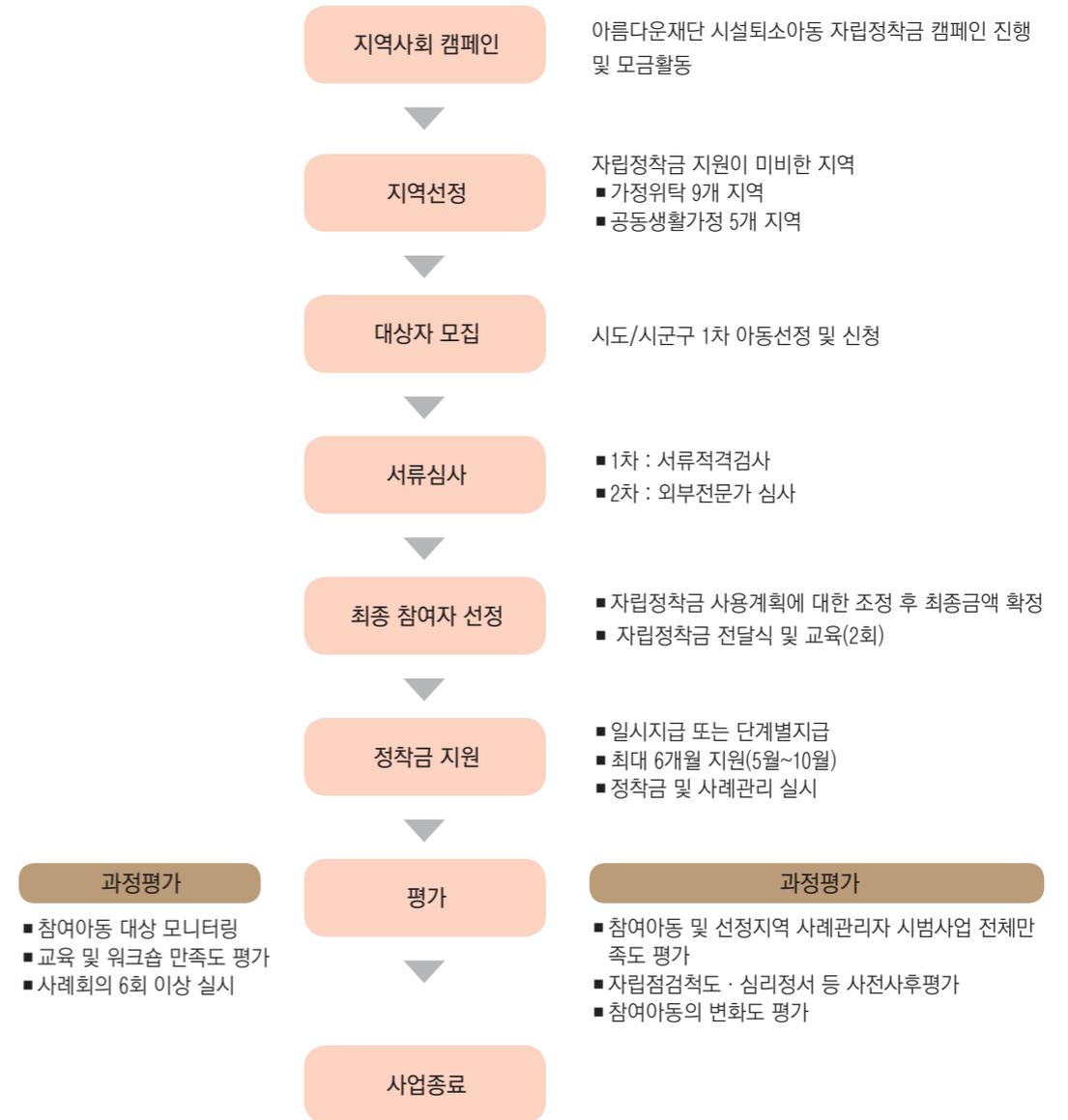
[출처]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전국 17개 시도 담당공무원 대상 2013년도 자립정착금 지급현황 조사(2014.2.27.~2.28.)

\* -\* 표시는 예산이 부재하거나 미신청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내 공문발송 및 유선 상 참여를 독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서류심사는 1, 2차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1차는 내부적으로 신청자 제출서류 및 활용계획서 내용 등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2차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3인을 구성하여 경제적 상황 및 시급성, 목표의 명확성, 정착금 활용계획 등의 내용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의 승인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60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초기에 작성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토대로 대상자의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하여 500만원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였다.

<표 1-2> 시범사업 진행과정



## 나. 사업추진체계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중앙기관으로써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주사례관리자로 참여한 5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는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 등 월 1~2회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외 시범사업 참여자의 보호기관 담당자는 부사례관리자로서 사례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여 대상자에 대한 사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1-3〉).

〈표 1-3〉 사업추진체계



## 3. 주요사업내용

### 가.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 나. 사업대상

○ 자립정착금이 미비한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60명

### 다. 사업내용

#### 1)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은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 지원이 부재한 지역을 조사하였고, 총 9개 지역선정 및 참여자 모집을 통해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였다. 참여자는 7가지 지출항목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여 계획적인 지출과 저축을 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의 주사례관리자는 중앙 사업단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7개월간 사례관리를 진행하였고, 사례회의 및 사례발표 등을 통해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끊임없이 교류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을 2회 진행하여 주사례관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형성을 돕고,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각 지역에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양적, 질적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2) 지역 모니터링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자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자립정착금 지원의 도움정도, 자립정착금 활용에 대한 의견,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모임에 참석한 대상자와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시범사업 담당자의 자기보고

지역 사례관리자는 참여자에 대한 시범사업 이후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행동평가 및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도, 성실도, 사업진행 이후 변화된 점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 4) 사례분석

자립정착금 지원과 함께 진행된 사례관리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과정을 탐구하였다.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의 효과를 대표하는 네 가지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초기에 제출한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 면담, 참여관찰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

1. 지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가. 지역선정
  - 나. 대상자 선정
2. 투입인력
3. 사업일정별 수행현황
  - 가. 전달식 및 워크숍
  - 나. 자립정착금 지원
  - 다. 사례관리 및 지역모임
  - 라. 사례회의 및 교육

## II.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운영

### 1. 지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가. 지역선정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17개 시도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동생활가정 중 자립정착금 지원이 부재한 전남, 세종, 경북, 경남, 총 4개 지역, 가정위탁종결아동 대상 자립정착금이 부재한 대구,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강원, 총 9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내 공문발송 및 유선 상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였다(〈표 II-1〉).

〈표 II-1〉 시범사업 1차 대상지역

구분	공동생활가정(4개지역)	가정위탁(9개지역)
지역	전남, 세종, 경북, 경남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1차 대상자 모집 중 강원도 내 강릉시와 태백시,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강원지역 내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여 총 9개 지역의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을 추진하였다(〈표 II-2〉).

〈표 II-2〉 시범사업 2차 대상지역

구분	공동생활가정(5개지역)	가정위탁(9개지역)
지역	전남, 세종, 경북, 경남, 강원(추가)	대구,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강원

#### 나. 대상자 선정

시범사업 대상자는 2차례에 걸쳐 60명을 심사 및 선정하였다. 1차 모집은 초기 사업안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전모집기간과 본 모집기간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사전모집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시도 및 보호체계별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모집은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일주일 간 진행되었다.

2차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어 시간관계상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독려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경제적 상황 및 시급성, 목표의 명확성, 자립정착금 활용계획, 충실도, 기타 사항, 5가지의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인원은 각각 34명, 26명으로 총 60명의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II-3〉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시기	모집방법	선정인원
총 참여인원			60명
1차 모집	2014. 3. 24.(월) ~ 3. 31.(월)	• 지자체 공문발송 • 공동생활가정,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공문발송	34명
2차 모집	2014. 4. 11.(금) ~ 5. 2.(금)	• 지자체 공문발송 • 공동생활가정,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공문발송	26명

〈그림1〉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모집

**희망 내일을 열어주는 자립꿈 프로젝트**

**사업명**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2014년도 자립정착금 지원이 부재한 차역 내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종결아동(보호종결 예정자 포함) 00명

- 공동생활가정: 세종, 전남, 경북, 경남지역
- 가정위탁: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0월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4. 3. 25.(화) ~ 4. 2.(수)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지원양식: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jarip.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Tel. 02-2127-5913 E-mail. jarip@kohi.or.kr

---

**03월 자립알리미**

2014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및 연구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금곡동 소재의 월세아파트에 입주한 퇴소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및 사후관리대상자를 대입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기간: 2014. 04 ~ 2015. 03 (1년간)

지원대상: 현재 서울시에 월세아파트에 입주한 퇴소 청소년 중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퇴소 청소년(보호종결 또는 종결자, 위탁자, 퇴원종결자)

지원내용

- 월세금(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보증금 및 공과금은 본인부담)
- 주거관리인할 월급 및 주거관리료 지원
- 주거관리료, 사후관리, 임대차 계약, 보증금 등 지원 시의 열세, 열여덟 지원 가능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4. 3. 3.(수) ~ 2014. 3. 18.(수)
- 접수방법: 신청서, 양식과 제출서류를 E-mail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가능)

문의: 아동자립지원사업단 (02-2127-5913)

## 2. 투입인력

아동자립지원사업과 지역 사례관리자는 주사례관리자로서 각각 자립정착금, 심리상담 및 자원연계 등의 역할을 구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역할은 다음의 <표 II-4>, <표 II-5>과 같다.

〈표 II-4〉 주사례관리자 역할

주 사례관리자					
사업단	경기북부	대구	전북	경북	경남
아동자립지원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정착금 지원 - 매월 10일 이내</li> <li>시범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 정착금 조정: 매달 셋째 주 - 상담 진행(수시)</li> <li>지역 모니터링 실시 - 6~9월, 총 16회</li> <li>사례회의 진행 - 4~10월, 총 7회</li> </ul>	지역 사례관리자 (가정위탁 자립지원 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관리 - 시범사업 대상자 및 위탁부모 - 상담 진행(수시)</li> <li>외부 및 센터 내 자원연계 - 심리상담, 취업멘토링 등</li> <li>사례회의 참석 및 사례발표</li> <li>지역 모니터링 참석(선택)</li> </ul>		

〈표 II-5〉 사례관리자 업무내용

주 사례관리자 역할 및 세부내용	부 사례관리자 역할 및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관리 월 1~2회 이상 실시</li> <li>사례관리일지 사업단 제출(매월 20일)</li> <li>사례관리계획 및 사회적 관계망 표 작성</li> <li>아동행동평가서 작성</li> <li>자립정착금 관련 행사 및 사례회의 참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단과 사업대상자와의 중간자 역할</li> <li>전달식 및 워크숍, 사례회의 참석(선택)</li> </ul>

### 3. 사업일정별 수행현황

구분	월별 추진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범사업	○사업공지 및 서류접수	■	■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								
	○1차 전달식		■									
	○2차 전달식			■								
	○자립정착금 지원			■	■	■	■	■	■	■		
	○최종워크숍								■			
사례관리	○사례관리 계획수립	■	■									
	○사례관리 실시	■	■	■	■	■	■	■	■	■		
	○지역모임(모니터링 및 점검)			■	■	■	■	■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	■	■	■	■	■	■	■			
	○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			■	■	■						
사업홍보	○'14 자립지원포럼 주제발표										■	
	○보도자료 배부	■	■						■			
	○홈페이지, SNS	■	■	■	■	■	■	■	■	■	■	
	○자립알리미 발송		■	■	■	■	■		■	■	■	
○ 사업완료											▲	

#### 가. 전달식 및 워크숍

최종 선정된 7개 지역의 1, 2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달식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1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범사업 1차 대상자 23명을 대상으로 대전에서 진행하였으며, 2회는 5월 24일(토)에 1차 불참자 및 2차 대상자 37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1차 전달식 및 교육은 표현예술활동 및 바람개비 서포터즈 강의로 구성되어 멘토 및 사례관리자와의 관계 및 지지체계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자와 주 사례관리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 것을 고려하여 지루하거나 어색하지 않도록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제 막 종결된 아동들에게 자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바람개비 서포터즈<sup>3)</sup>의 자립과정과 경험에 대한 강의와 자립정보를 제공하였다.

2차 교육은 1차 전달식 및 교육에 참석한 주 사례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돈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효율적인 돈 관리 방법에 대한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1, 2차 워크숍 및 교육에서는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자립정착금 활용방안, 가계부 작성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시범사업 참여 시 필요한 태도와 자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계부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자립정착금 사용항목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본 사업단에서 자체 제작하였다.

3) 선배가 후배의 바람개비 회전(자립)을 위한 바람(동력)이 되어 준다는 의미로 아동 자립지원 서포터즈

## 나.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60명은 시범사업 신청당시 작성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토대로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참여자의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하여 500만원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였다.

또한 자립정착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립정착금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정착금에 대한 입출금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사용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자는 배부한 가계부에 자립정착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과 지출 내용을 수시로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표 II-6〉 자립정착금 지원과정

주 사례관리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매월 셋째 주 (정착금 지급 전)	사전에 작성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지출 계획의 변경사항이 없는지 검토
▼	▼	▼
변경내용 조정 (해당자)	매월 마지막 주 (정착금 지급 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된 지출내용에 대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변경사항 조정
▼	▼	▼
정착금 지급	매월 10일 이내	1차: 5~9월 85만원/10월 75만원(6회 분할지급 기준) 2차: 6~10월 100만원(5회 분할지급 기준)
▼	▼	▼
가계부 작성	수시	3자립정착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과 지출 내용 작성 및 영수증 첨부

〈그림2〉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가계부



## 다. 사례관리 및 지역모임

### 1)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자가 있는 5개 지역(경기북부, 대구, 전북, 경북,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시범사업의 주 사례관리자가 되어 36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7개월간 수시로 진행하였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례관리자는 시범사업 대상자 60명의 자립정착금 사용내용을 확인하고 상황 및 수요를 파악하여 월별로 지급액을 조정하였으며, 주사례관리자가 부재한 24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사례관리는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SNS 등을 활용하였다.

주사례관리자는 대상자의 자립점검척도 사전점수를 참고하여 사례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월 1~2회 이상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사업단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종료 시 아동행동평가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참여도와 성실도, 사업진행 이후 변화된 점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표 II-7〉 주 사례관리자의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인원

주사례관리자	시범사업 대상자 인원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9명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8명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4명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8명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전담요원	7명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4명
총 인원	60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있으나 주사례관리자로서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의 경우 가정위탁 및 공동생활가정 담당자는 부 사례관리자로서 사업단이 대상자와의 관계유지 및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주 사례관리자와 부 사례관리자는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사례관리교육 및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사례관리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 운영과 대상자에 대한 사례내용을 논의하였다.

〈그림3〉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SNS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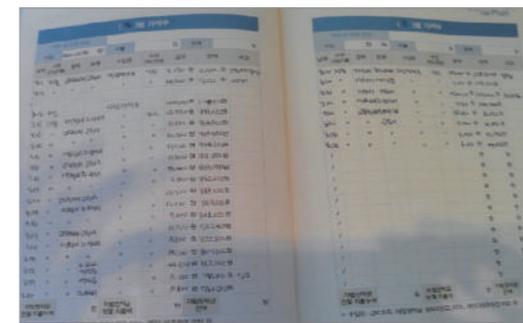
2) 지역모임(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 동안 경기, 경기북부,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에서 내방 및 방문을 통해 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지역 모니터링은 사례관리자와 지역 대상자들의 관계형성 및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가계부 점검을 통해 정착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 모니터링 중 가족적 배경, 경제관념 및 소비행동의 변화, 자립정착금의 필요 및 자립의 의미, 정착금에 대한 기대 및 미래계획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8〉 모니터링 참석인원 및 점검내용

구분	지역	내용	
1차	6월	강원, 대구, 경북,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실태 파악</li> <li>가계부 점검</li> <li>심리정서 및 소비형태 사전조사</li> </ul>
	7월	경기, 경기북부, 전남, 전북	
2차	8월	강원, 대구, 경북,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실태 파악</li> <li>가계부 점검</li> <li>초점집단 면접조사</li> </ul>
	9월	경기, 경기북부, 전남, 전북	



〈가계부 1〉



〈가계부 2〉

## 라. 사례회의 및 교육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사례관리자와 부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자간담회와 사례회의 및 교육을 총 7회 실시하였다. 주사례관리자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60명에 대한 사례를 꾸준히 관리하고 2회 이상의 사례를 발표하여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총 7회에 걸친 회의 중 1, 2차에 진행된 실무자간담회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무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자 역할 조율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3차 사례회의에서는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DiSC(행동유형검사)와 사례관리실천기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와 대상자들의 자립정착금 활용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본 회의를 통하여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기관별 사례개입 및 접근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두 달 동안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과 실천이 부재하였다. 이에 4차, 5차 사례회의에서는 진로상담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실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례발표와 슈퍼비전을 통해 시범사업대상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9월에 진행된 6차 사례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사례를 제출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10월, 7차는 실무자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초점집단면접조사로 사례관리과정 및 개선점, 자립정착금 용도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표 II-9〉 사례회의 일정 및 세부내용

회차	일시	내용
1	2014. 4. 26.(토) 10:00	- 4월, 5월 사례회의(실무자간담회) : 사업내용 및 사례관리자 역할 공유
2	2014. 5. 24.(토) 17:00	
3	2014. 6. 24.(화) 12:00	- DiSC(행동유형검사)를 활용하여 대상자 및 주변인 특성파악을 통한 사례개입 - 대상자 사례관리내용 공유 및 논의
4	2014. 7. 29.(화) 12:00	- 진로상담 과정과 기법 -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5	2014. 8. 26.(화) 12:00	- 진로상담 사례분석 -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6	2014. 9. 30.(화) 12:00	- 사례제출 및 슈퍼비전
7	2014. 10. 17.(금) 21:00	- 10월 사례회의(실무자간담회)



〈사례회의〉



〈사례관리교육〉



# 시범사업 결과

1. 개요
  - 가. 조사개요
  - 나. 측정도구
2. 시범사업 참여자 특성
  - 가. 일반적 특성
  - 나. 원가족 여부 및 관계
  - 다. 경제상황
  - 라. 시범사업 당시 상황
3. 시범사업 효과성에 대한 양적평가
  - 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따른 실제 지출액 비교
  - 나. 사전사후 자립도 비교
  - 다. 사전사후 심리정서 비교
  - 라. 사전사후 소비성향 비교
  - 마. 교육 및 전체만족도
  - 바. 시범사업 전체만족도
4. 시범사업 효과성에 대한 질적평가
  - 가. 사례분석
  - 나. 심층인터뷰
  - 다. 아동행동평가

# III. 시범사업 결과

## 1. 개요

### 가. 조사개요

본 시범사업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자립정착금이 미비한 지역 내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및 사례관리를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총 9개 지역의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60명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례관리자와 7개 기관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담당자가 사례관리자로 참여하였다.

### 나. 측정도구

#### 1) 참여자 효과측정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보호종결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당시 신청서, 소비척도, 자립점검척도, 심리정서척도, 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1〉 참여자 대상 측정도구

영역	측정도구	출처
소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보건복지부(2014)
	가계부	자체개발
	소비성향	남수정·김주란(2008)
	돈의 의미	장현성·허경옥(2009)
자립도	자립점검척도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3)
심리정서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심리정서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2)
만족도	전체만족도	자체개발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자체개발

#### 2) 사례관리자의 효과측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호종결아동뿐만 아니라 주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전후로 행동의 변화량, 시범사업 참여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표 III-2〉 사례관리자 대상 측정도구

영역	측정도구	출처
변화도	아동행동평가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2)
만족도	전체만족도	자체개발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자체개발

## 2. 시범사업 참여자 특성

### 가. 일반적 특성

다음의 〈표 III-3〉는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참여자 연령대는 20세가 63.3%로 가장 많았으며, 21세가 18.3%, 19세가 15.0%, 22세 이상 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유형으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리 가정위탁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 가정위탁이 26.7%, 공동생활가정 10.0%, 일반가정위탁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 나. 원가족 여부 및 관계

다음의 <표 III-4>는 시범사업 참여자의 원가족 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해당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 58명 중 52명(86.7%)는 원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0.3%는 원가족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 원가족 여부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52	86.7	89.7	89.7
없음	4	6.7	6.9	96.6
모름	2	3.3	3.4	100.0
합계	58	96.7	100.0	

시범사업 대상자는 원가족의 생존여부에 대해 부(父)가 생존해 계신 경우가 53.8%, 모(母)가 생존해 계신 경우가 30.8%, 형제가 살아있는 경우가 15.4%로 나타나, 대부분 친부모가 생존해 있었다(<표 III-5>). 다만 친부모와 연락하는 횟수로는 59.6%가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40.4%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부모와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

<표 III-5> 원가족 생존여부

(단위: 명,%)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부	28	53.8	53.8
모	16	30.8	84.6
형제	8	15.4	100.0
합계	52	100.0	

또한 이들의 보호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8.3%로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26.7%, 10년 이상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은 경기지역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북지역이 20.0%, 경남지역이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60)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연령	19세	9	15.0	15.0
	20세	38	63.3	63.3
	21세	11	18.3	18.3
	22세 이상	2	3.3	3.3
보호 유형	일반가정위탁	3	5.0	5.0
	대리가정위탁	35	58.3	58.3
	친인척가정위탁	16	26.7	26.7
	공동생활가정	6	10.0	10.0
보호 기간	1년 미만	2	3.3	3.3
	1년이상 5년미만	22	36.7	36.7
	5년이상 10년미만	29	48.3	48.3
	10년 이상	7	11.7	11.7
보호 지역	강원	6	10.0	10.0
	경기	17	28.3	28.3
	경남	8	13.3	13.3
	경북	12	20.0	20.0
	대구	5	8.3	8.3
	전남	7	11.7	11.7
	전북	5	8.3	8.3
종결 년도	2013	2	3.3	3.3
	2014	58	96.7	96.7
장애 여부	있음	2	3.3	3.3
	없다	58	96.7	96.7

〈표 III-6〉 부모연락횟수

(단위: 명,%)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달	11	19.3	19.3
2~3개월에 한번	6	10.5	29.8
1년에 한두 번	5	8.8	38.6
2~3년에 한번	1	1.8	40.4
연락없음	34	59.6	100.0
합계	57	100.0	

시범사업 대상자의 경우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78.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II-7〉). 그 동거인으로는 일반위탁가정을 포함한 조부모 및 친인척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제와 살고 있는 비율이 40.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친구, 퇴소 선배, 부모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

또한 대부분의 가정위탁은 근로능력이 부족한 조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함에 따라 보호가 종결된 아동이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7〉 동거인 여부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음	47	78.3	78.3	78.3
없음	13	21.7	21.7	100.0
합계	60	100.0	100.0	

〈표 III-8〉 동거인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부모	2	3.4	4.3
형제	19	32.2	40.4
친구	5	8.5	10.6
조부모	21	35.6	44.7
친인척	8	13.6	17.0
위탁가정	3	5.1	6.4
기타	1	1.7	2.1
합계	59	100.0	

시범사업 대상자의 신청당시 주거형태는 LH전세주택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세 및 위탁가정이 각각 19.3%, 기숙사 8.8%, 전세 7.0%, 자가 5.3%, 친구집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3〉).

가정위탁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보호기간 동안 LH전세주택을 지원받게 되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월세, 위탁가정, 친구집, 기숙사 등과 같이 불안정한 주거에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주거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13〉 신청당시 주거형태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자가	3	5.3	5.3	5.3
전세	4	7.0	7.0	12.3
월세	11	19.3	19.3	31.6
영구임대	2	3.5	3.5	35.1
시설거주	2	3.5	3.5	38.6
LH 전세주택	16	28.1	28.1	66.7
위탁가정	11	19.3	19.3	86.0
기숙사	5	8.8	8.8	94.7
친구집	2	3.5	3.5	98.2
기타	1	1.8	1.8	100.0
합계	57	100.0	100.0	

### 다. 경제상황

시범사업 대상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67만원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월평균 총 소득액은 약 95만원이고, CDA 평균 적립액은 약 187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III-14〉를 통해 이들의 지출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교통통신비, 자기계발, 의료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812만원, 평균 월세보증금은 411만원, 평균월세는 19만원으로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보증금 평균값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14〉 시범사업 당시 지출규모(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거 (41)	1	13	21.7	31.7
	2	9	15.0	22.0
	3	5	8.3	12.2
	4	4	6.7	9.8
	5	5	8.3	12.2
	6	5	8.3	12.2
생활비 (57)	1	30	50.0	52.6
	2	18	30.0	31.6
	3	9	15.0	15.8
자기계발 (37)	1	5	8.3	13.5
	2	3	5.0	8.1
	3	8	13.3	21.6
	4	15	25.0	40.5
	5	6	10.0	16.2
교통통신 (58)	1	5	8.3	8.6
	2	22	36.7	37.9
	3	20	33.3	34.5
	4	10	16.7	17.2
	5	1	1.7	1.7
의료 (30)	1	1	1.7	3.3
	2	3	5.0	10.0
	3	4	6.7	13.3
	4	7	11.7	23.3
	5	11	18.3	36.7
	6	4	6.7	13.3
기타 (32)	1	8	13.3	25.0
	2	2	3.3	6.3
	3	8	13.3	25.0
	4	5	8.3	15.6
	5	5	8.3	15.6
	6	4	6.7	12.5

생활비 마련방법으로는 아르바이트가 41.4%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금이 25.9%, 근로소득 20.7%, 기타 15.5%, 친인척의 도움이 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하여 아르바이트나 정부지원금 등 불안정한 소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의 〈표 III-15〉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임시적인 아르바이트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취업한 경우에도 수습이거나 생산적인 경우가 많으며, 장시간 근로와 고된 노동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표 III-15〉 생활비 마련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기관후원	1	1.4	1.7
개인후원	1	1.4	1.7
아르바이트	24	34.8	41.4
근로소득	12	17.4	20.7
정부지원금	15	21.7	25.9
친인척의 도움	7	10.1	12.1
기타	9	13.0	15.5
합계	69	100.0	

시범사업 대상자의 45.0%는 정부의 아무런 지원이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절반이상인 53.1%로 나타났고, 정부지원이 있는 이들의 경우 월평균 정부지원액은 약 38만원이었다. 보호종결아동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게 되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이전까지 받던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표 III-18〉 취업자 직장유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서비스직	3	15.0	15.0
사무직	5	25.0	40.0
전문직	1	5.0	45.0
판매직	2	10.0	55.0
기능직	1	5.0	60.0
기계조작/조립	5	25.0	85.0
단순노무직	2	10.0	95.0
기타	1	5.0	100.0
합계	20	100.0	

진학자의 경우 학비를 마련할 때에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35.3%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결아동은 첫 학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학기부터는 성적요건이 적용된다.

일부 시범사업 대상자는 첫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였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업에 지장을 주게 되어 휴학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위의 〈표 III-15〉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높은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19〉 진학자 학비마련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장학금(학교/외부지원)	3	17.6	21.4
국가장학금	6	35.3	42.9
본인아르바이트	1	5.9	7.1
친척도움	1	5.9	7.1
학자금대출	2	11.8	14.3
기타	4	23.5	28.6
합계	17	100.0	

〈표 III-16〉 정부지원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없음	27	45.0	45.0
기초생활수급자	28	46.7	46.7
차상위계층	4	6.7	6.7
기타	1	1.7	1.7
합계	60	100.0	100.0

### 라. 시범사업 당시 상황

시범사업 대상자 총 60명 중 무직자가 46.7%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그 외 취업자는 33.3%, 진학자는 20.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2년도 대학진학 등으로 연장 보호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대부분의 진학자는 연장보호가 된 것으로 보여 지며, 진학준비 또는 취학준비를 하고 있거나 취업한 상황에 놓인 다수의 보호종결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신청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무직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자립을 강요받는 실정이라서 이들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일정기간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17〉 시범사업 신청 당시 상황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취업자	20	33.3	33.3	33.3
진학자	12	20.0	20.0	53.3
무직자	28	46.7	46.7	100.0
합계	60	100.0	100.0	

또한 취업자의 경우 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직이 35.0%로 높았으며, 사무직이 25.0%, 서비스직이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직자는 대체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50.0%, 기타 28.6%,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21.4%로 나타났다.

〈표 III-20〉 무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취업준비	14	23.3	50.0	50.0
진학준비	6	10.0	21.4	71.4
기타	8	13.3	28.6	100.0
합계	28	46.7	100.0	
시스템결측값	32	53.3		
합계	60	100.0		

### 3. 시범사업 효과성에 대한 양적평가

#### 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따른 실제 지출액 비교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립정착금 500만원에 대한 관리와 사례관리를 위해 생활비, 주거비,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총7가지 지출항목을 규정하여 계획하도록 하였다. 지출항목에 대한 규제는 마련하였지만, 사행산업 등 유흥비에 대한 사용제한을 강화하였을 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 자립정착금 사례관리자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표 III-21〉 자립정착금 활용가능한 지출항목

구분	지출항목	내용
1	생활비	주, 부식비 및 생필품, 공과금, 문화여가비 등
2	주거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숙사비 등
3	자립지원비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비, 학원비 등
4	학업비	등록금, 교재비 등
5	교통통신비	교통 및 핸드폰 요금 등
6	의료비	진료, 진찰, 입원비, 약제구입비 등
7	기타비	주민세, 피복신발 등

다음의 〈표 III-22〉는 시범사업 대상자가 초기 참여 신청 시 작성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과 실제 지출 후 작성한 가계부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한 평균비용이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생활비가 28.0%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다음으로 주거비가 23.7%, 자립지원비 14.8%, 교통통신비 13.0%, 학업비 11.4%, 기타비 5.7%, 의료비 3.4% 순으로 지출을 예상하였다.

가계부 상으로 실제 지출한 생활비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출비율에서는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비 및 교통통신비가 각 16.1%, 기타비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외 잔액은 저축하였고, 저축분은 향후 대학등록금 및 자격증 취득, 청약저축 등 주거비 마련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표 III-2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 원)

항목	사용계획	퍼센트	실제 지출액	퍼센트	유효퍼센트	증감
주거비	1,187,391	23.7	538,135	10.8	16.1	△588,365
생활비	1,398,347	28.0	1,120,274	22.4	33.5	△297,793
자립지원비	740,279	14.8	351,448	7.0	10.5	△419,433
학업비	570,869	11.4	219,718	4.4	6.6	△370,782
교통통신비	650,434	13.0	540,654	10.8	16.1	△113,013
의료비	169,198	3.4	146,187	2.9	4.4	△6,032
기타비	283,475	5.7	432,380	8.6	12.9	144,214
계	5,000,000	100	3,348,796	70.0	100	-
저축(잔액)	-	-	1,651,204	33.0	-	1,651,204
합계	5,000,000	100.0	5,000,000	100.0	-	-

1) 성별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비교

다음의 <표 III-23>는 성별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한 표이다. 총 지출비용에 있어서 사용계획과 실제 지출액이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

실제 지출액에서 남자는 주거비, 생활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에서는 감소하였다. 여자는 생활비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었던 반면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가 줄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무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 진다. 자립지원비는 명확한 미래계획 아래 실천적인 형태로 자격 취득 등 학원비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20대 초반의 시범사업 대상자인 보호종결아동 대부분은 미래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탐색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뿐 아니라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에 할애하는 중 그동안 배우고자 했던 분야에 대한 여유시간이 부족하여 보호 중 자립지원과 더불어 미래계획 등 진로탐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23> 성별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원)

항목	주거비	생활비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합계	
남자	사용계획	137,879	251,212	680,303	668,750	649,000	137,879	251,212	2,776,235
	실제 지출액	551,755	761,371	150,992	217,366	414,275	79,901	306,946	2,482,606
	증감	413,876	510,159	△529,311	△451,384	△234,725	△57,978	55,734	△293,629
여자	사용계획	169,746	333,333	881,587	610,000	759,615	169,746	333,333	3,257,360
	실제 지출액	242,456	978,051	414,218	108,666	414,778	151,403	361,491	2,671,063
	증감	72,710	644,718	△467,369	△501,334	△344,837	△18,343	28,158	△586,297

2) 보호기간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비교

다음의 <표 III-24>는 보호기간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을 비교한 표이다.

1년 미만의 대상자는 생활비 지출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거비 또한 다소 증가한 반면 자립지원비와 의료비, 학업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5년 미만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상자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증액 지출된 반면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는 큰 폭으로 지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학업보다는 주거 또는 생활 등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지출하였다.

<표 III-24> 보호기간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원, 명)

항목	주거비	생활비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1년 미만	사용계획	32,920	175,000	417,580	-	605,000	32,920	175,000
	실제 지출액	375,000	1,860,773	-	-	189,590	-	314,500
	증감	342,080	1,685,773	△417,580	-	△415,410	△32,920	39,500
1년 이상 5년 미만	사용계획	90,909	360,000	977,272	497,727	817,000	90,909	360,000
	실제 지출액	164,361	705,274	256,352	100,003	398,992	109,147	207,658
	증감	73,452	345,274	△720,920	△397,724	△418,008	18,238	152,342
5년 이상 10년 미만	사용계획	207,761	254,286	782,418	668,800	622,963	207,761	254,286
	실제 지출액	505,117	973,650	371,639	233,892	49,102	139,563	476,508
	증감	297,356	719,364	△410,779	△434,908	△573,861	△68,198	222,222
10년 이상	사용계획	178,571	271,429	285,714	642,857	766,667	178,571	271,429
	실제 지출액	840,714	441,159	-	114,286	182,103	59,374	54,464
	증감	662,143	169,730	△285,714	△528,571	△584,564	△119,197	△216,965

3) 동거인 여부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비교

다음의 <표 III-25>는 동거인 여부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지출현황에 대한 평균비용을 비교한 표이다.

동거인이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용계획 시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와 같이 대상자 본인의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실제 지출내역을 통해 자신을 위한 비용보다는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대다수가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자립정착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26〉 동거인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원, 명)

항목	주거비	생활비	자립 지원비	학업비	교통 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부모	사용계획	-	250,000	500,000	-	700,000	-	250,000
	실제 지출액	-	863,960	-	-	271,220	35,340	373,378
	증감	-	613,960	△500,000	-	△428,780	35,340	123,378
형제 자매	사용계획	182,397	125,000	727,937	522,667	673,529	182,397	175,000
	실제 지출액	586,244	850,220	140,185	170,837	391,825	97,465	306,829
	증감	403,847	725,220	△587,752	△351,830	△281,704	△84,932	131,829
친구	사용계획	180,000	580,000	430,000	-	866,000	180,000	580,000
	실제 지출액	510,000	1,115,770	116,180	-	646,539	157,280	430,820
	증감	330,000	535,770	△313,820	-	△219,461	△22,720	△149,180
조부모	사용계획	161,538	326,923	773,077	780,833	702,500	161,538	326,923
	실제 지출액	284,269	776,304	459,815	92,354	281,687	55,163	360,999
	증감	122,731	449,381	△313,262	△688,479	△420,813	△106,375	34,076
친인척	사용계획	100,000	504,000	1,800,000	548,000	698,000	100,000	504,000
	실제 지출액	-	1,320,493	838,960	95,494	643,584	351,200	570,557
	증감	△100,000	816,493	△961,040	△452,506	△54,416	251,200	66,557
위탁 가정	사용계획	216,667	6,667	600,000	1,340,000	520,000	216,667	6,667
	실제 지출액	1,000,000	349,757	543,333	319,667	214,720	125,613	8,333
	증감	783,333	343,090	△56,667	△1,020,333	△305,280	△91,054	1,666

5) 주거형태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비교

다음의 〈표 III-27〉는 주거형태에 따라 자립정착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현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그 평균비용을 비교한 표이다.

주거형태별 자립정착금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주거비와 생활비가 증액된 가운데 자립지원비, 학업비, 교통통신비, 의료비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자가의 경우 자립지원비와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의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영구임대는 주거비가 감소하고, 생활비와 학업비가 증액되었다.

〈표 III-25〉 동거인 여부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원, 명)

항목	주거비	생활비	자립 지원비	학업비	교통 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동거인 있음	사용계획	158,152	298,723	789,423	571,395	696,889	298,723
	실제 지출액	421,232	858,605	317,162	121,258	390,468	340,310
	증감	263,080	559,882	△472,261	△450,137	△306,421	△41,952
동거인 없음	사용계획	130,769	250,000	703,846	905,000	714,545	350,000
	실제 지출액	381,256	859,861	96,923	339,069	501,392	299,609
	증감	250,487	609,861	△606,923	△565,931	△213,153	△33,599

4) 동거인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비교

다음의 〈표 III-26〉는 동거인 형태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지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표이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기타비로 사용되었으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비나 학업비에서 실제 지출액이 전혀 없었다. 그 외 형제자매, 친구, 조부모, 친인척, 위탁가정과 동거하는 경우도 생활비와 주거비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범사업 대상자가 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 자립지원비와 학업비에 대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게 생계유지이라는 생활고로 인해 자신의 긍정적인 미래계획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지며, 자립정착금이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으로써의 역할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 진다.

〈표 III-27〉 주거형태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원, 명)

항목	주거비	생활비	자립 지원비	학업비	교통 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자가	사용계획	66,667	533,333	1,400,000	66,667	700,000	66,667	533,333
	실제 지출액	680,333	685,143	575,177	84,880	847,795	46,533	356,416
	증감	613,666	151,810	△824,823	18,213	147,795	20,134	△176,917
전세	사용계획	150,000	237,500	1,125,000	500,000	475,000	150,000	237,500
	실제 지출액	420,000	857,875	576,250	-	169,548	136,080	455,081
	증감	270,000	620,375	△548,750	△500,000	△305,452	△13,920	217,581
월세	사용계획	233,258	120,909	685,924	895,556	726,364	233,258	120,909
	실제 지출액	493,818	699,680	351,045	361,765	196,460	25,316	226,834
	증감	260,560	578,771	△334,879	△533,791	△529,904	△207,942	105,925
영구 임대	사용계획	808,650	525,000	1,083,850	-	570,000	808,650	525,000
	실제 지출액	-	1,346,420	191,930	3,580	116,060	490,687	575,210
	증감	△808,650	821,420	△891,920	3,580	△453,940	△317,963	50,210
시설 거주	사용계획	225,000	400,000	225,000	-	650,000	225,000	400,000
	실제 지출액	-	766,940	-	-	204,880	-	373,378
	증감	△225,000	366,940	△225,000	-	△445,120	△225,000	△26,622
LH 전세 주택	사용계획	61,111	321,111	733,056	639,722	751,212	61,111	321,111
	실제 지출액	375,159	931,586	219,187	162,939	488,632	122,965	330,966
	증감	314,048	610,475	△513,869	△476,783	△262,580	61,854	9,855

6) 직업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비교

다음의 〈표 III-28〉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직업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과 실제지출액의 평균 비용을 비교한 표이다.

취업자는 초기 자립지원비와 교통통신비에 대해 많이 지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타비, 교통통신비, 주거비를 많이 사용하였다. 진학자는 초기 학업비로 자립정착금의 약 30% 가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지출한 비율은 8.5%에 불과하였고, 생활비, 주거비, 자립지원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학자는 취업자와 무직자에 비해 자립지원비에 대한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휴학 중에 자기계발을 위한 계기 및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함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

무직자는 생활비, 교통통신비,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적은 비용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출유형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생활안정을 추구하고 미래계획에 대한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보호종결 시 무직자에 대한 진로탐색 및 미래계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28〉 직업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원, 명)

항목	주거비	생활비	자립 지원비	학업비	교통 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취업자	사용계획	120,000	323,000	920,000	456,471	688,947	120,000	323,000
	실제 지출액	328,320	876,368	185,137	76,285	351,584	167,110	360,566
	증감	208,320	553,368	△734,863	△380,186	△337,363	47,110	37,566
진학자	사용계획	179,167	190,000	471,667	1,529,167	662,000	179,167	190,000
	실제 지출액	532,152	813,437	492,883	424,812	438,203	78,109	336,542
	증감	352,985	623,437	21,216	△1,104,355	△223,797	△101,058	146,542
무직자	사용계획	163,684	305,357	792,602	358,462	722,593	163,684	305,357
	실제 지출액	421,500	865,857	233,904	124,414	449,285	87,326	308,559
	증감	257,816	560,500	△558,698	△234,048	△273,308	△76,358	3,202

7) 무직자의 초기상황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 비교

다음의 〈표 III-29〉는 무직자의 사업 초기상황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현황을 비교한 표이다.

취업준비 중인 경우 사용계획 시 자립지원비와 교통통신비에 대해 많은 지출을 예상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주거비, 생활비, 기타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준비 중인 경우 향후 대학진학을 염두에 둔 학업비와 자립지원비를 예상하였기 때문에 사업종료 이후 학업비로 지출예정인 대부분 저축하였다. 특히 취업준비 대상자는 사용계획보다 실제 지출액이 14.6% 가량 더 많았고, 진학준비 대상자는 31.4% 가량 적게 지출하였다.

〈표 III-29〉 무직자의 초기상황에 따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지출 평균비용

(단위: 원)

항목	주거비	생활비	자립 지원비	학업비	교통 통신비	의료비	기타비	
취업 준비	사용계획	188,081	367,857	735,204	15,000	720,000	188,081	367,857
	실제 지출액	564,429	1,352,830	158,469	6,329	567,603	139,234	521,976
	증감	376,348	984,973	△576,735	△8,671	△152,397	△48,847	154,119
진학 준비	사용계획	116,667	291,667	808,333	1,190,000	450,000	116,667	291,667
	실제 지출액	150,000	464,083	271,667	401,000	309,777	25,150	74,388
	증감	33,333	172,416	△536,666	△789,000	△140,223	△91,517	△217,279
기타	사용계획	156,250	206,250	881,250	250,000	897,500	156,250	206,250
	실제 지출액	375,000	314,985	337,592	123,625	347,610	43,118	110,706
	증감	218,750	108,735	△543,658	△126,375	△549,890	△113,132	△95,544

#### 나. 사전사후 자립도 비교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척도로써 자립점검척도를 실시한다. 자립점검척도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만18세 보호종결 직전의 보호아동의 자립준비정도를 확인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자립의 필수적인 사항을 체크하도록 2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의 방식을 통해 각 영역에서 핵심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만 질문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자립점검을 하는 것이다.

본 시범사업에서는 자립점검척도 8개 영역 중 돈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주거, 원가족, 심리정서, 6개 영역을 가정위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점검척도 점수를 토대로 취약한 영역의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시범사업 참여자가 돈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주거, 원가족, 심리정서, 총 6개영역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를 비교해보므로써 얼마나 자립에 가까이 다가갔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사전 사후척도 모두 체크한 대상자 중 최종 수합된 48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1점에 가까워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돈관리 기술

다음의 〈표 III-30〉는 돈관리 기술에 대한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총 11개 문항 중 6개 문항(54.5%)에서 돈관리 기술점수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문항은 인터넷(스마트)뱅킹을 개설하고 활용할 수 있다(0.16점 향상), 저축 또는 적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0.13점 향상). 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계부 작성과 스스로 통장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기에 해당 내용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외 불법다단계 대부업 대출의 위험성 인지, 돈을 빌리는 방법 및 장단점 인지, CDA 또는 후원금 등 금액인지, 저축액 사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30〉 돈관리 기술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신용카드의 단점과 좋은 신용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47	1.13	1.06	△0.07
2	자신의 한 달 수입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할 수 있다.	45	1.16	1.13	△0.03
3	직불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47	1.17	1.15	△0.02
4	인터넷(스마트)뱅킹을 개설하고 활용할 수 있다.	45	1.27	1.11	△0.16
5	저축 또는 적금을 하고 있다.	45	1.33	1.20	△0.13
6	실제 구매에 앞서 상품의 가격과 질을 비교한다.	45	1.16	1.16	-
7	합법적인 직업과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47	1.15	1.13	△0.02
8	불법다단계나 대부업대출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44	1.11	1.16	0.05
9	돈을 빌리는 다양한 방법(예, 친구, 가족, 은행대출, 학자금 대출 등)들을 알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45	1.09	1.16	0.07
10	자립을 위한 저축액(CDA, 후원금, 용돈 등)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45	1.31	1.33	0.02
11	자립을 위한 저축액(CDA, 후원금, 용돈 등)을 어떻게 사용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 지출하였다.)	45	1.31	1.38	0.07

#### 2) 사회적 기술

다음의 〈표 III-31〉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총 7 문항 중 6개 문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그 중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0.11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응답이 0.09점으로 다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나에게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0.02점 소폭 하락하였다.

단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 0.08점과 0.72점이 낮아졌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단순 학자금 대출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과 아직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용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여 진다.

〈표 III-33〉 진학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전공)가 있다. (현재 대학진학(또는 휴학) 중이다)	12	1.00	1.00	-
2	내가 원하는 대학의 입학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입학정보를 알고 지원하였다)	12	1.00	1.08	0.08
3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12	1.00	1.08	0.08
4	등록금 외에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책, 교재, 여행, 생활비 등)을 알고 있다.	12	1.08	1.00	△0.08
5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12	1.08	1.80	0.72
6	대학생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2	1.08	1.33	0.25
7	성적관리를 위한 적절한 학습방법을 알고 있다.	12	1.17	1.17	-
8	시간과 성적관리 등이 학업을 유지하고 내가 계획한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	1.08	1.00	△0.08

5) 취업

다음의 〈표 III-34〉는 취업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보호종결 후 취업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아동의 경우 총 10개 문항 중 6개의 문항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취업했거나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전보다 0.04점 하락하여 직장을 구하는 데에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의 경우 등 불합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 0.08점과 0.09점이 높아졌다. 이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그 밖의 활동으로 서포터즈와 교류를 함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의 마련으로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대상자는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진행되는 동안 1명 이상 사례관리자를 두어 한 달에 2, 3회 이상 자립정착금 점검 및 심리정서지원, 자원연계 등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며, 지역 모니터링 활동 및 워크숍을 통해 대상자 집단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도움에 대한 지지기반이 더 견고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31〉 사회적 기술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44	1.18	1.14	△0.04
2	화를 내지 않고 나에게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44	1.09	1.11	0.02
3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다.	44	1.25	1.23	△0.02
4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4	1.16	1.11	△0.05
5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4	1.25	1.16	△0.09
6	타인의 요청을 기본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44	1.20	1.14	△0.06
7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4	1.11	1.00	△0.11

3)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다음의 〈표 III-32〉는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에 대한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학진학 또는 취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0.05점 하락하였다. 또한 진학 또는 취업 이후의 구체적인 인생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변화가 없어 보호종결아동이 진학 또는 취업정보를 제공받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표 III-32〉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대학진학 또는 취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관련 사이트 등)	44	1.18	1.23	0.05
2	대학진학 또는 취업 후의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	44	1.27	1.27	-

4) 진학

다음의 〈표 III-33〉는 진학정보 등에 대한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응답자 중 진학자이거나 보호종결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모두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가 있거나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한국장학재

〈표 III-35〉 주거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정부주거지원정보를 [동사무소,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44	1.36	1.36	-
2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게 될 경우 주거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기숙사, 자립생활관 등)에 대해 알고 있다.	44	1.27	1.36	0.09
3	집을 얻는 방법(부동산 이용방법, 전월세계약절차 등)을 알고 있다.	44	1.57	1.52	△0.05
4	집을 얻은 후 전입신고절차와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44	1.75	1.61	△0.14
5	납부해야 할 공과금의 종류와 납부방법을 알고 있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알고 있다.	43	1.30	1.30	-
6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어겼을 경우 생기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	44	1.55	1.57	0.02

7) 원가족(친부모)

다음의 〈표 III-37〉은 원가족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원가족과의 사전사후 응답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 중 원가족과 교류가 자주 있다고 한 응답은 사후에 0.05점이 하락하였고, 원가족의 요청을 기분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도 0.03점 하락하였다. 특히 원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평균 1.79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목적은 원가정 복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정위탁이 대부분인 시범사업 대상자는 원가족과의 교류나 원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원가정 복귀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기반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36〉 원가족 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원가족(부모, 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과 교류(전화 및 만남)가 자주 있다.	44	1.68	1.73	0.05
2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다.	44	1.52	1.52	-
3	원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4	1.68	1.66	△0.02
4	원가족의 요청을 기분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43	1.53	1.56	0.03
5	원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43	1.79	1.79	-
6	원가족에게 돌아갈 경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44	1.68	1.66	△0.02

\* (전체공통) 원가족이 없는 경우, ②번 아니오 체크

〈표 III-34〉 취업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취업이 목적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임을 알고 있다.	25	1.04	1.04	-
2	직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취업을 하였다)	25	1.16	1.20	0.04
3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	25	1.60	1.52	△0.08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다.	25	1.36	1.36	-
5	5대 보험, 퇴직금, 이직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	25	1.33	1.33	-
6	부당해고, 임금 체불의 경우 등 불합리한 상황 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4	1.38	1.29	△0.09
7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25	1.12	1.12	-
8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25	1.04	1.04	-
9	행동과 태도가 승진을 하거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	1.08	1.12	0.04
10	지각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직장 상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적절한 옷을 입고 출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25	1.00	1.00	-

6) 주거

다음의 〈표 III-35〉는 주거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아래의 문항 중 집을 얻은 후 전입신고절차와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 해당 문항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0.14점 증가하였다. 그 뿐 아니라 부동산 이용방법, 전월세 계약절차 등 집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도 0.05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자립정착금으로 주거를 마련하게 된 대상자가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을 통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어겼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8) 심리정서

다음의 <표 III-38>는 심리정서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불안, 우울, 슬픔, 자살사고 등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사전 사후 모두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는 응답이 소폭 낮아져 종결이후 독립하여 혼자 지내야 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37> 심리정서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43	1.74	1.74	-
2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43	1.60	1.56	△0.04
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43	1.67	1.74	0.07
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43	1.91	1.93	0.02

다. 사전사후 심리정서 비교

심리정서 척도는 5점 척도로써 사전사후 검사로 진행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내용은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한 45명의 설문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1) 자아존중감

다음의 <표 III-39>는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결과, 자신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점수가 다소 향상되었다. 또한 아래의 문항 4번, 5번, 6번의 사전점수 살펴보면, 역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하여 총 6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다소 향상되었다고 보여 진다. 다만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0.02점이 하락하여 보호종결 이후 사회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가 좀 더 낮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38>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5	3.78	3.89	0.11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5	3.62	3.60	△0.02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5	3.91	3.96	0.05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5	2.07	2.04	△0.03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5	2.33	2.07	△0.26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45	1.98	1.93	△0.05

2) 심리행동문제

다음의 <표 III-40>는 심리행동문제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상자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는 사후응답이 다소 높아져 분노를 조절하는 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에 비해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 노력하는 등 사후점수가 높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39> 심리행동문제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45	2.49	2.36	△0.13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45	3.04	2.98	△0.06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5	1.73	1.76	0.03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45	2.09	2.24	0.15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45	1.89	1.60	△0.29
6	나는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45	1.71	1.64	△0.07
7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5	3.16	3.27	0.11
8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45	3.67	3.78	0.11
9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 노력한다.	45	3.80	3.84	0.04
10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45	2.02	1.96	△0.06
11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45	2.98	2.78	△0.20

### 3) 사회적지지

다음의 <표 III-41>는 사회적지지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상자가 스스로 주변사람들을 인식하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지가 된다는 데에 보통 정도의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문항 5번인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돕는다는 문항에서 1.98점이 크게 하락하였고, 그 밖에 돌봄과 사랑을 느끼고 있지 않은 점, 대상자가 잘했을 때에 칭찬에 인색한 점 등 지지체계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할뿐더러 이는 자원부족으로 연계되어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지지자로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역할이 요구되지만, 보호아동과 보호종결아동 모두의 자립과정에 개입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력확충 및 배치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40> 사회적지지 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43	3.23	3.05	△0.18
2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면 아무리 큰돈이라도 마련해 준다.	43	2.79	2.86	0.07
3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43	3.37	3.26	△0.11
4 그들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43	3.23	3.28	0.05
5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돕는다.	45	3.04	1.06	△1.98
6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43	3.37	3.30	△0.07
7 그들은 내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43	3.26	3.02	△0.24
8 그들은 무슨 일 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돕는다.	43	3.26	3.21	△0.05
9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3	3.19	3.14	△0.05
10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43	3.33	3.26	△0.07
11 그들은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 자극, 용기를 준다.	43	3.26	3.16	△0.1
12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충고해 준다.	43	3.28	3.19	△0.09
13 그들은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43	3.28	3.26	△0.02
14 그들은 내가 몸져누워있을 때, 일을 대신 해준다.	43	2.72	2.67	△0.05
15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 준다.	43	3.23	3.23	-

### 4) 스트레스 대처방법

다음의 <표 III-42>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상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상황을 상상해보며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점수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자는 문제상황에 대해 현재보다 더 나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문제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며,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려는 사후점수가 이전보다 낮아져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기보다는 문제상황을 회피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41> 스트레스 대처방법 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44	3.68	3.82	0.14
2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44	3.52	3.48	△0.04
3 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44	3.16	3.18	0.02
4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으려고 한다.	44	2.45	2.50	0.05
5 마음속으로 참는다.	44	3.52	3.55	0.03
6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란다.	44	2.73	3.02	0.29
7 힘든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에 전념한다.	44	3.34	3.25	△0.09
8 그 일이 현재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44	3.14	3.02	△0.12
9 그 문제를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43	3.42	3.26	△0.16
10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44	3.80	3.82	0.02
11 더 좋은 상황을 상상해 본다.	44	3.75	3.86	0.11
12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려본다.	44	3.70	3.75	0.05
13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해 본다.	44	3.64	3.64	-
14 새로운 활동이나 일들을 시도해 본다.	44	3.70	3.43	△0.27
15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44	3.41	3.23	△0.18
16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44	3.25	3.16	△0.09
17 긍정적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44	3.84	3.80	△0.04
18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	44	2.82	2.89	0.07
19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44	3.32	3.27	△0.05

### 5) 공동체의식

다음의 <표 III-43>는 공동체의식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은 이전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 5, 6개월간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내 또래들과의 만남과 서포터즈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42> 공동체의식 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45	3.20	3.24	0.04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45	2.58	2.64	0.06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5	2.67	2.84	0.17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5	3.04	3.13	0.09

### 6) 낙인감

다음의 <표 III-44>는 낙인감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상자는 사회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가정위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정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음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한 것과 지금까지 정부지원으로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것은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고 여기며, 사회에서 자신을 문제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대상자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회 안에서 이러한 낙인감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 진다.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낙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III-43> 낙인감 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45	1.56	1.80	0.24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44	1.59	1.80	0.21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44	1.68	1.82	0.14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44	1.55	1.68	0.13
5	나는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다.	44	2.80	2.61	△0.19
6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44	1.75	1.77	0.02
7	나는 사회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43	2.56	2.63	0.07
8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43	1.72	1.93	0.21
9	사회는 나를 편견을 가지고 본다.*	43	1.81	1.84	0.03
10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43	1.63	1.65	0.02

### 라. 사전사후 소비성향 비교

#### 1) 돈에 대한 생각

다음의 <표 III-45>는 돈에 대한 생각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상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정도를 통해 성공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성공이 돈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더 견고해졌으며, 저축에 대해서는 비상시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 17번에서 저축한 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시범사업 대상자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거나 차상위계층이었던 저소득층으로 미래계획은 부재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대리가정위탁일 경우 조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돈에 대한 생각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보여 진다.

〈표 III-45〉 소비성향 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유명상표를 사용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43	2.44	2.21	△0.23
2 남에게 보이는 물건은 비싸더라도 유명상표를 구입하려고 노력한다.	43	1.95	1.88	△0.07
3 유명브랜드 제품을 살 때 상표나 마크가 잘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43	1.84	1.88	0.04
4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명제품을 나 혼자만 사용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낀다.	43	1.58	1.63	0.05
5 외국어로 된 상표명을 붙여야 세련되게 보인다.	43	1.58	1.58	-
6 내가 유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제품이 특별하다기보다 남들이 나를 다르게 봐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43	1.77	1.63	△0.14
7 싼 물건을 쓰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43	1.63	1.56	△0.07
8 고급품을 이용하면 친구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43	1.70	1.63	△0.07
9 가격이 싼 브랜드 상표나 마크를 떼어내고 옷을 입은 적이 있다.	43	1.60	1.72	0.12
10 물건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값이 비싼 것이 더 나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한다.	43	2.16	1.88	△0.28
11 친하고 싶은 친구들 무리에 들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같은 수준의 옷이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3	1.79	1.72	△0.07
12 주변 친구들이 유행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사야 기죽지 않는다.	43	1.63	1.58	△0.05
13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 물건이라도 유행이 지난 것은 쓰고 싶지 않다.	43	1.56	1.77	0.21
14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인기가 있는 제품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다.	43	1.79	1.93	0.14
15 유행제품을 남보다 먼저 가지고 있으면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43	1.84	1.95	0.11
16 초라하게 보이는 차림은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시킨다.	43	2.28	2.37	0.09
17 옷차림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므로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43	2.42	2.33	△0.09
18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집 형편에 비해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무리해서 쓰는 것이 사실이다.	43	1.58	1.63	0.05

마. 교육 및 전체만족도

1) 1차 전달식 및 워크숍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34명에 대한 1차 전달식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되었으며, 총 2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3세로 남자 44.0%, 여자 56.0%로 여자 참여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또한 참여자의 보호유형은 공동생활가정이 24.0%, 가정위탁이 76.0%였다.

〈표 III-44〉 돈에 대한 생각 관련 사전사후점수

내용	N	사전	사후	증감
1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43	3.44	3.51	0.07
2 돈 버는 정도를 통해 그 사람의 성공을 짐작할 수 있다.	43	3.12	3.40	0.28
3 유능한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번다.	43	3.53	3.47	△0.06
4 나는 성공이 곧 돈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43	3.16	3.53	0.37
5 돈은 곧 성공의 상징이다.	43	3.21	3.28	0.07
6 나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	4.14	4.07	△0.07
7 저축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43	4.47	4.28	△0.19
8 저축을 충분히 하는 것은 미래의 나의 가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43	4.42	4.23	△0.19
9 미래를 위해 돈 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43	4.09	3.91	△0.18
10 저축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43	4.00	3.93	△0.07
11 나는 종종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물건이라면 기꺼이 사는 편이다.	43	3.05	2.98	△0.07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멋진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다.	43	2.51	2.67	0.16
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 노력한다.	42	2.43	2.36	0.07
14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43	3.09	2.84	△0.25
15 나는 용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	43	2.95	2.84	△0.11
16 나는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	43	3.35	3.14	△0.21
17 내가 저축한 돈은 충분하지 않다.	43	3.35	3.40	0.05

2) 소비성향

다음의 〈표 III-46〉는 소비성향 관련 사전사후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대상자의 소비성향은 과하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참여자 성별 및 보호유형

(단위: 명, %)

성별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11	14	25
	%	44.0	56.0	100.0

보호유형	구분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인원	6	19	25
	%	24.0	76.0	100.0

시범사업 참여자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미비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그 지역 중 선정된 7개 지역 중 워크숍 참여자는 경기지역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47〉 참여자 보호지역

구분	대구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경북	합계
인원	2	7	4	3	5	2	2	25
%	8.0	28.0	16.0	12.0	20.0	8.0	8.0	100.0

또한 1차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 불만족스럽다 2점, 만족스럽다 3점, 매우 만족스럽다 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만점에 3.60점으로 만족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III-48〉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평균점수
사업안내 및 전달식	3.6
몸으로 마음으로 I 찾기	3.5
문서작성안내	3.6
서포터즈와의 만남	3.6
자립꿈 심기	3.6

워크숍 참여자 대상 도움정도에 대한 결과는 총 4점 중 3.5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워크숍을 통해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자립지원내용을 알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프로그램 도움정도

항목	평균점수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자립지원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3.7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 되었다.	3.7
프로그램이 나의 강점과 비전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3.4
자립정착금 활용계획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3.6
자립꿈 심기	3.6

1차 전달식 및 워크숍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 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었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
- 자립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가정위탁아동이었던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성인으로서 빨리 자립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았고 공부하는 동기가 뚜렷해졌다.
- 자립에 대해 알았다.
-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자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정착금 사용방법과 가계부 작성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 즐겁고 재미있고, 적응도 잘해서 전국적으로 친구도 생겨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중요성에 대해 알았다.

### 2) 2차 전달식 및 교육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26명에 대한 2차 전달식은 5월 24일 종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전달식에 참여하지 못한 아동 포함하여 총 37명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이들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8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2세로 남자 57.2%, 여자 42.9%로 남자의 참여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또한 참여자의 보호유형은 공동생활가정이 17.9%, 가정위탁이 82.1%였다.

〈표 III-53〉 프로그램 도움정도

항목	평균점수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자립지원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3.5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 되었다.	3.5
프로그램이 나의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3.6
자립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3.5
자립정착금 활용계획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3.6

2차 전달식 및 교육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앞으로 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른 사람들과 서로 아픔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 '생각하면서 살아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가계부 정리
- 자립정착금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배울 수 있었다.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돈이 아무리 많아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 자립정착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다.
- 지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경제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평소 지식보다 더 심도 있는 경제교육 활동을 통해 모르던 것과 궁금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느꼈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자립정착금 전달식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알게 되었다.
- 돈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 자립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이 도움이 됐다.
- 교육을 통해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좋았다.
- 소비와 돈을 쓰는 방법
-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축과 소비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 가계부 작성법을 알고 올바른 소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정확히 배워서 가계부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경제교육을 통해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표 III-50〉 참여자 성별 및 보호유형

(단위: 명, %)

성별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16	12	28
	%	57.1	42.9	100.0

보호유형	구분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인원	5	23	28
	%	17.9	82.1	100.0

시범사업 참여자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미비한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그 지역 중 선정된 7개 지역 중 워크숍 참여자는 경남, 경북지역이 각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5명, 대구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참여자 보호지역

(단위: 명, %)

구분	대구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경북	합계
인원	4	5	3	1	1	7	7	28
%	14.3	17.9	10.7	3.6	3.6	25.0	25.0	100.0

또한 2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 불만족스럽다 2점, 만족스럽다 3점, 매우 만족스럽다 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만점에 3.61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III-52〉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평균점수
사업안내 및 전달식	3.7
99%소비교육	3.6
문서작성안내	3.6
자립꿈 심기	3.5

전달식 및 교육 참여자 대상 도움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총 4점 중 3.54점으로 1차 전달식 및 워크숍과 같았다.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이 자신의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자립정착금 활용계획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3) 최종워크숍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최종워크숍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들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30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7세로 남자 50.0%, 여 자 50.0%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같았다. 참여자의 보호유형은 공동생활가정이 17.9%, 가정위탁 이 82.1%였다.

〈표 III-54〉 참여자 성별 및 보호유형

(단위: 명, %)

성별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15	15	30
%	50.0	50.0	100.0	

보호유형	구분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기타	합계
	인원	4	17	9	30
%	13.0	57.0	30.0	100.0	

〈표 III-55〉 참여자 보호지역

(단위: 명, %)

구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기타	합계
인원	8	3	2	4	3	6	4	30
%	27	10	7	13	10	20	13	100

최종워크숍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 불만족스럽다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스럽다 4점, 매우 만족스럽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만점에 4.7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통통프로그램'과 서포터즈와의 만남이 4.8점으로 점수가 매우 높았다.

〈표 III-56〉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평균점수
통통프로그램(나와 통하면 세상과 통한다)	4.8
서포터즈와의 만남	4.8
마무리활동(소감문 작성 및 발표 등)	4.7
체험활동	4.6

최종워크숍 참여자 대상 도움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총 5점 중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움정도는 친밀감 형성, 꿈에 대한 동기부여, 자립에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응 답이 모두 4.6점으로 같았다.

〈표 III-57〉 프로그램 도움정도

항목	평균점수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4.6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꿈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4.6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4.6

또한 최종워크숍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주었다.
- 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다.
- 계획적인 지출의 필요성을 느꼈다.
- 저축 방법도 알게 되고 미래계획을 세우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자립에 자신감이 생겼다.
- 서포터즈의 금융관련 강의와 서포터즈의 만남시간에 조언을 들었던 부분

### 바. 시범사업 전체만족도

다음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 대한 평가이다. 조 사참여자는 총 57명으로 평균연령 22.7세이다. 이들은 남자 48.9%, 여자 51.1%로 성별이 골고루 분 포되어 있었으며, 공동생활가정 9.1%, 가정위탁 90.9%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자립정착금 미비 지역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대상 자립정착금이 부재하였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III-58〉 참여자 성별 및 보호유형

(단위: 명, %)

성별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22	23
%		48.9	51.1	100.0

보호유형	구분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인원		4	40
%		9.1	90.9	100.0

〈표 III-59〉 참여자 보호지역

(단위: 명, %)

구분	대구	경기	경기북부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기타	합계
인원	5	10	1	4	1	3	4	7	12	57
%	11.1	22.2	2.2	8.9	2.2	6.7	8.9	25.0	26.7	100.0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5점 만점 중 4.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정착금이 자립의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도움정도도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4.7점으로 위의 시범사업 전체만족도와 같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시범사업을 참여한 이후 도움이 되었다는 점수가 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가 4.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계획이 분명해졌다는 응답은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에 속하였다. 이후 미래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60〉 참여자 보호지역

프로그램	평균점수
자립정착금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4.8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4.5
수입 및 지출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4.2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졌다(미래계획).	4.1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4.4
앞으로도 담당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것이다.	4.4

다음은 워크숍에 참여한 자신에 대해 평가한 결과이다. 자립정착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담당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수가 4.0점이었다.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생기는 영수증을 챙기고, 한번도 써보지 못한 가계부를 써보기도 하였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20대에 자신의 지출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보여 진다.

〈표 III-61〉 참여도

항목	평균점수
나는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9
나는 자립정착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4.1
나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였다.	3.7
나는 담당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4.0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같은 하루, 같은 사람을 만나며 살기에만 급급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앞으로 가야할 길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생각과 경제개념을 배우게 되어 좋았다.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위안과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돈에 대해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돈 관리하는 법이나 등등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좋았다.
- 고정지출이 나가지 않아서 더 효과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로인해 내가 한층 더 발전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 덕분에 대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제가 하고싶은 일과 해야할 일을 찾았습니다.
- 만남이 좋았다.
-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이랑도 좋은 만남을 가져서 좋았다.
-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 바람개비 서포터즈 분들이나 저희 자립정착금 담당선생님 덕분에 저의 멘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나 몰랐던 것,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6개월이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 사회초년생으로 혼자 자립하여 살아 매월 적은 수입으로 저축이나 자기계발에 힘쓰지 못했는데, 자립정착금 지원 덕분에 여유있게 적금을 들 수 있었고 직업관련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4. 시범사업 효과성에 대한 질적평가

### 가. 사례분석

#### 1)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형성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친부모에 의해 양육시설에 맡겨졌으나, 농사를 지으시는 조부모에 의해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었다가 보호종결되었다.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항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부재하였고, 부모님을 원망하였으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대상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으나,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자기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조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공부를 시작했으며, 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고3때, 타지에 있는 공장에 실습을 나갔지만 수술을 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고, 누나와 대도시로 옮겨 일을 하던 중,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에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당시 의류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두 달 만에 퇴사하였고, 이후 군 입대 전까지 많은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일을 선택함에 있어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부분은 '돈'이었다.

사례관리자는 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전에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하였던 부분을 언급하며, 진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이 필요했으나 경제적인 상황과 성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에 사례관리자는 장학제도, 직업 및 자격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뿐 아니라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돈'이라는 보상만으로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인 목적과 시각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사후지도하였다. 지속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고민을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대학진학 및 자격증취득을 위해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우고 있다.

또한 자립정착금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저축을 해보았으며, 소득활동으로 500만원이라는 여윗돈도 마련하여 이후 대학진학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 어색할 수도 있었던 팀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생활 때의 협동심을 키우고 막막했던 자립의 틀을 잡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독립심이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아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우선은 자립정착금으로 인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을 1회에 모두 지급하였더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인데, 분할하여 지급되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연락과 모임을 통해 안부와 지출계획을 이야기하며 관리를 해주셨던 점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전 면허증을 따고 싶었는데 자금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정착금으로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었다.
-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가계부 작성을 통해 나의 지출 비용이랑 저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나의 꿈에 대해 한 발짝 다가가게 되어 좋았다.
- 자립정착금으로 하고 싶었던 것과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자립정착금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 자립정착금을 통해 가계부를 적고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가계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정착금을 사용했는지 말하는 것 등의 관심을 받는 것이 좋았다. 한 번 쓰고 획 치우면 안할 것이 분명한데 관심을 통해서 좀 더 관리한 것 같고 돈을 더 유익하게 쓴 것 같다. 처음 해봤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거리낌이 안 들었던 것 같다.
- 자립정착금을 통해 저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어 실생활에 유익했다.
- 자립지원금을 통해 돈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좋았다.
- 정착금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 정착금을 받으면서 가계부도 작성해보고 적금도 할 수 있었다. 정말 유익했다.
- 좀 더 여유가 생겨서 못했던 운동이나 학원을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 좋았고, 매 시간 도움되고 감동적이었어요.
- 처음으로 이렇게 도움받아서 5개월동안 정말 돈 걱정 없이 지내왔던 것 같다. 솔직히 자신있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썼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런 기회가 나에게 생긴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지원금을 받으면서 돈에 대해 아껴야하는 마음과 어떻게 지출해서 써야하는지 이제야 정말 느꼈다.
-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었고 지출계획을 세우면서 더 올바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평소에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립정착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사용하는 습관이라는게 생겨서 계획하면서 쓴 것 같다. 그리고 평소에 영수증을 잘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수증 같은 걸 꼬박꼬박 챙기게 되었다.
- 항상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알바를 해 용돈을 벌었는데, 자립정착금을 통해서 알바 부담도 많이 줄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자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받는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제약도 많이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사만 다니면서 집-회사-혹은 지난친구가 전부였던 생활 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환기가 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포터즈분들, 선생님들 또 뵙고 싶을거예요!!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개비 서포터즈 6기 지원할거예요!!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기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돈을 모으고 싶어도 '세상은 돈이 전부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을 지원 받으면서부터 처음으로 돈도 모을 수 있었으며 가게부도 작성해보고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저축하며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 2) 역할모델 발견-멘토 및 주변 지지체계 형성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친모의 외도와 친부의 사망으로 11세에 백부가정에 위탁되었다. 양육 초기에는 근로활동을 하며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었으나, 사업 실패로 행정기관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대상자는 운동선수로 활동하다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로를 찾던 중 부서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목표설정 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 아쉽게 탈락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상자는 자립정착금을 연체된 공과금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용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중 백부가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대상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며칠 동안 끼니를 거르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생활적인 측면뿐 아닌 심리정서적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부재로 인한 심리정서적 위축을 돕고자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주 사례관리자는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공과금 납부 등 일상생활 전반적인 일들을 도왔으며, 그 외에도 워크숍, 지역모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주변 지지체계를 돈독히 하였다. 그리하여 대상자의 삶을 염려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자립을 향한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대상자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겨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진행한 어색할 수도 있었던 팀 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생활 때의 협동심을 키우고 막막했던 자립의 틀을 잡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독립심이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아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내게 사람이라곤 친척과 복지사님 밖에 없었는데, 같은 상황인 친구들과 알고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들을 들어 자극이 되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 역시도 사회로부터 받을 것을 베풀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꼭 연락하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 3) 경제적 안정-주거 및 생활의 안정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친부모의 사망으로 동생과 함께 조부모에게 위탁되었다. 건강상의 문제와 고령의 나이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조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인턴사원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대상자는 타지에서 원룸을 구해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월 급여 70만원 중 30만원에 대한 월세가 매우 부담스러웠는데, 자립정착금으로 월세를 납부하여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원룸에 도둑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웠다. 사건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주인의 무책임함과 주변인들의 걱정으로 주거비를 더 지출하더라도 보안이 철저한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갑작스러운 이사비용이 두 배로 지출되면서 발생한 비용은 자립정착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이후 소득으로 발생한 돈을 매달 저축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정직원도 아닌 인턴으로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0만원의 급여를 받는 저에게는 빠듯한 생활 걱정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월세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던 저에게 자립정착금 오백만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 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통해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으며, 끼니도 거르지 않을 수 있었고 사무직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은 돈이나마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생활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직업에 대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재 등을 구입하여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 날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며 제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4) 학업 집중도 향상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백부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인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비와 교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1년 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

씩 일해야 하는 불규칙한 공장생활로 인해 수면장애나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학력제한으로 승진도 어려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단에 내방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을 소통할 수 있었고 지역모임과 워크숍에서 진행한 다양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다.

정착금을 받으면서 저축한 돈은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과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비용적인 부담이 생겨 치료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치과진료 및 수술을 받게 되었다. 급여로만 감당하기에는 575만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었지만 정착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약 5개월간의 시간동안 금전적인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정착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함께 진행된 가계부 작성과 교육 등을 통해 소비습관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 등 인생 전반에 대해 한번쯤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립정착금이 있어서 저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계부와 영수증 보관 습관을 통해 능동적인 소비습관을 만들 계기가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자세로 앞으로도 낭비 없는 소비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나. 심층인터뷰

### 1) 개요

본 조사는 자립정착금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범사업 참여자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례관리자는 2014년 10월 17일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2)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자는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와 지역 사례관리자이다. 종결아동 대상 인터뷰는 지역별 모니터링에 참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례관리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5개 기관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였다. 평일은 4시간, 주말은 9시간씩 주6일은 일을 하였다.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고, 다행히 학교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아르바이트로 영어와 컴퓨터 자격증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중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였고, 컴활1급 취득과 토익학원에 다니게 되어 대상자는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금 줄여 공부를 했고, 해당학기에 성적 우수자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대상자는 정착금을 지원받고 돈이 아닌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으며,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며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되었네요. ... 제가 6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를 살펴보니 계획대로 잘 한 것도 있지만, 초기에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을 통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토익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계획할 때 미리 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있었지만, 제 꿈을 위해 필요한 물품(전공 책과 실습 복을 구입 등)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꿈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계부 쓰는 법도 배우고 6개월 정도 쓰다 보니 이제 가계부 쓰는 일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제 생활의 일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착금 사업이 끝나고도 앞으로 틈나는 대로 가계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관념을 가지고 지금처럼 돈을 계획적으로 쓰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번 정착금지원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5) 능동적인 소비습관 형성 및 긴급한 의료비용의 지출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어머니의 오랜 투병생활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8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입소 후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해당년도에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이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포기하였고, 공장에 취업하였다.

이번 정착금을 받으며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나, 매일 8시간에서 12시간

다음의 <표 III-62>는 인터뷰 참여자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표 III-62> 인터뷰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보호유형/소속기관유형	
시범사업 참여자	A	남	가정위탁
	B	여	가정위탁
	C	남	가정위탁
	D	여	가정위탁
	E	남	공동생활가정
	F	여	가정위탁
	G	남	가정위탁
사례관리자	H	여	가정위탁
	I	여	가정위탁
	J	여	가정위탁
	K	여	가정위탁
	L	여	가정위탁

3) 조사결과

가) 시범사업 참여자

(1) 자립정착금 신청당시 및 현재 경제상황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여동생과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나 저나 예전에 일한 적은 없었어요. 이전부터 수급비를 받아 생활비로 썼어요. ... 학교에 들어가고 커피숍 알바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휴학했어요. ...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잠 때문에 학교 수업도 자꾸 빠져서 학교(학사경고)를 받았어요. ... (A)

(대학) 등록금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수급비를 모은 돈으로 냈어요. 계속 그 돈으로 등록금을 쓰기엔 금액이 너무 크고 결혼도 해야 해서 ... 한 학기에 교재만 40만원이 들어요. 1년이면 80만원 이고, 부담이 돼요. (A)

할머니하고 산 지는 13년 정도. 가정형편이 좋지는 않았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했고, ... 정착금 받기 전에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다해주셨어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C)

어렸을 때 알바를 하긴 했지만 제가 필요한 걸 사려고 한 거예요. 집에 생활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집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C)

공장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주어 스스로 퇴소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정직원이 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환경은 아니예요. ... 최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퇴사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하지만 월세를 내야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B)

(2) 자립정착금에 대한 만족감

... 동사무소에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서 신청했어요. ...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사고 싶은 거 했어요. 오래된 TV가 있었는데 새로 샀고, 정착금 받고 생활도 어렵지 않았고요. ... 할머니가 정착금으로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을 거예요. 저축한 정착금은 군대에 다녀와서 생활비로 쓸 거예요. 그때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A)

처음에는 등록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변경해서 생활비로 썼어요. 하고 싶었던 운전면허도 땀고요. 정착금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사용했던 돈은 나중에 돈 벌어서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가 많이 늦춰졌을 거예요. (A)

... 정착금 받고 이전보다 편안해졌어요. 아무래도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먹어야 할 약이 있었는데 그 약도 하려고요. (A)

정착금 받고 관리는 전부 할머니가 했어요. 전 거의 집에 없어서 어떻게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착금 받기 전에는 집세가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 돈을 다 낼 수 있었어요. ... 음악을 좋아하는데 실용음악학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 ... (C)

저를 위해 직접적으로 돈을 쓰진 않았지만 밀린 집세하고 생활에 엄청 보탬이 됐어요. (C)

정착금을 받아서 개인돈으로 지출해야 될 돈은 아끼고 저축할 수 있었어요. 정착금이 없었다면, 편의점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저축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D)

정착금을 신청할 때에 주거비하고 생활비로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원룸을 얻어 생활하는데 만족스럽고, 정착금을 받으면서 할머니와 동생한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B)

정착금으로 '자립'이란 걸 할 수 있었어요. ...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주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퇴소하고 가장 중요했었는데, 정착금으로 월세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고 지금까지 한 일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E)

정착금 받기 전에는 정부지원금과 할머니의 기초연금으로 살았는데, 정착금 받고 난 후 간호조무학원에도 다닐 수 있었어요. 아직 학원을 더 다녀야 하지만, 정착금 다 쓰면 알바하면서 다녀야 할 것 같아요. (F)

**(3) 소비행동변화**

이번에 물건 구입하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비교해보면서 신중했던 것 같아요. 꼼꼼한 성격도 아니라, 가게부 쓰는게 부담이 됐지만 매일매일 정리하게 됐어요. (A)

고3때부터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비 받으면 바로바로 지출해야 했어요. 이번에 정착금 받으면서 알바비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 가게부를 쓰고 내 돈에서 시장도 보고 물건도 사고 하니까 최대한 저렴한 걸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D)

돈을 벌고 있지만, 월급을 다 사용해도 정착금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돼요. 하지만 정착금과 월급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소비가 커진 부분도 있지요. ... (B)

정착금을 받고 가게부를 작성하면서 사업담당자에게 소비한 내용을 확인받게 되어 왜지 눈치가 보였지만,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었어요. (E)

처음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때, 생활비로 가족을 위해 쓰고 싶었어요. 목표한 대로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생활비로도 사용하고, 학원도 다니고 ... 돈 관리는 할머니가 해주셨지만, 제가 직접 가게부를 쓸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항목대로 딱 맞게 돈을 맞춰야 하니까 자꾸 신경도 쓰게 되고요. (F)

**(4) 자립정착금 지급방식에 대한 인식**

처음에 5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막막했을 거예요. (처음에 사용계획이 있었지만) 상관없이 막막했을 거예요. 큰 금액이라 ... (A)

큰 돈이 들어오면 당황스럽게 되고, 불편할 거예요. 지금처럼 나눠서 주는게 좋은 것 같아요. (C)

정착금이 500만원 한꺼번에 들어왔대도 지출계획에 맞춰 사용했을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F)

**(5)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동사무소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하고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정착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고 그 때부터 선생님들하고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정착금 받고 (가정위탁) 센터 선생님하고 정착금 주는 (사업단) 선생님하고는 계속해서 연락했어요. 귀찮지 않을 만큼 ... (선생님들하고 연락하고 지낸 건)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했어요. (A)

20살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하고 연락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동사무소는 (정착금) 신청할 때 한 번, 선생님하고는 정착금 되고 나서 더 자주 연락했어요. (C)

선생님들하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생활적인 거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 조언해주는 게 좋아요. (D)

**(6) 미래에 대한 생각**

어렸을 때부터 수급비를 모아서 학교 등록금으로 썼어요. 할머니가 모아서 해주셨어요.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이나 앞으로는 생활비는 수급비로 사용할 것 같아요. 졸업할 때까지는 ... 일단 군대에 다

너오고, 졸업해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취업을 할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 (A)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단 돈을 모으고 내년에는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돈이 부담이 많이 돼요. (C)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필요해요. (생활비) 돈 걱정 없이 지내고 싶어요. 단 한 학기만이라도 ... (A)

내년에 부서관 시험을 볼 계획이긴 한데, 경쟁률이 높고, 기준도 까다로워서 고민이 돼요. 부서관 말고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서 돈을 모아 악기나 보컬을 배우고 싶기도 해요 또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어요. (E)

#### 나) 지역 사례관리자

##### (1) 사례관리진행 중 어려움에 대한 의견

###### ① 종결이후 관계형성의 어려움 및 대상자의 의도적 회피

아르바이트, 취업 등 개별적인 일정 등을 이유로 전화 통화조차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 그래서 주로 사이버상담(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했지만, 아이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더라고요. (H)

보호 중 사례관리를 못했던 아동들과 성인이 된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그동안 담당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J)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상담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만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의 경우 전화상담도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통한 상담 시도하여 진행했으나, 중간에 의도적으로 전화상담 등을 회피하거나 아예 주변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사례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있었습니다. (J)

아이한테 연락해서 자원을 연결해 주고 싶어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고요. ... (K)

사례관리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나, 직장에 다니는 아동은 연락이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L)

##### ② 기관 내 자립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

기관에서 자립업무는 자립요원이 하지만, 사례관리는 상담원이 하게 되어 있어 업무가 나뉩니다. 자립요원은 자립계획 받아서 입력하고, 타 업무를 병행하게 되어있고, ... 자립아동들은 주로 밤에만 연락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

상담원이 종결아동을 만나고 오면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가 알아야 하지만 협조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K)

##### (2) 사례관리에 대한 전담요원의 역할

사례관리자가 정착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만 묻게 되면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자가 아동에게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

아동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이를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보호아동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닌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

... 전담요원은 아동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아동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접근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

구직 활동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경력을 고려해 구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속해나가는 경우가 많아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입이 사례담당자의 역할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 개입을 하면 즉각적인 수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

**(3) 자립정착금 활용 및 용도제한에 대한 의견**

**① 자립정착금 활용에 따른 저축생활**

취업자는 월급 외에 정착이 부수적으로 들어오니 생활비는 정착금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월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소에 쓰지 못했던 부분을 월급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월급을 저축하는 것은 사례관리자의 도움과 아동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

**② 가계부를 활용한 정착금 사용**

대상자들이 자립정착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책자 가계부를 엑셀 문서로 만들어 아동들에게 기입하게 하였고, 그 문서를 센터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달 가계부 사용 내역을 회신을 받았고, 이것을 토대로 기존의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에 맞춰 다음 달 사용 가능한 금액에 대해 알려줘 아동들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H)

아동들을 사례관리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아동들이 평소 가계부 작성을 해보지 않아 이에 대한 작성 부분이 어려웠고, 아동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피상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입이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단순히 경제교육이나 진로교육과 같은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H)

**(4) 사례관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우선적으로 전국에 있는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그룹홈 아동 등) 모두 동일하게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 (H)

연장아동과 종결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자립지원단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통합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장기적으로 종결아동의 자립프로그램 개발, 외부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기관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연장아동과 종결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H)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담요원의 경우 '자립'의 업무만을 담당할 수 없는 여건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 / 종결아동에 대한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개입 모두를 위해서는 전담요원의 노력만으로 부족 (J)

보호 중 아동 중 자립지원대상 아동이 600명 이상인 상황에서 보호 중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프로그램 또한 센터에서의 주요 업무이므로 ... 종결아동의 사례관리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J)

시범사업 진행 시 담당자로서 추측했던 것보다 용도의 범위에 있어서 각 아동의 상황이 반영되어 융통성있게 진행되었던 점 긍정적으로 사료. 자립정착금 지급방법과 활용에 있어서 목돈에 대한 관리나 감독 차원에서 현 시범사업과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강점이 있으나, 모든 보호종결 아동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진행하기에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동의나 자발성 없이는 공급자 위주의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을 것 (J)

아동 스스로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의 진정한 필요성, 정착금 사용에 대한 책임감 부여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착금 지원 아동을 모집하기 전 센터 내에서 이를 교육할 필요가 절실히 필요 (L)

주 사례담당자로부터 아동의 초기정보 부족.→ 종결 전 주 사례담당자의 적극적 협조 필요함. 아동과 연락하는 부분이나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립전담 요원보다는 라포 정도가 더욱 돈독함 (L)

**(5)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자립정착금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보호종결이후 가장 기본적인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데에 모두가 긍정적이었으며, 더불어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규모에 맞도록 지출을 돕는 것이 아이들의 변화에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이다. 반면,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아동의 상황에 맞게 보다 정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정착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기관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자립정착금 1,2차 지원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대리 혹은 친인척 가정위탁임. 위탁 종결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제는 가정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임. 아동들은 성인이 될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된 자립정착금은 아동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음. 무엇보다도 가계부 작성을 통해 예산에 맞춘 지출 방법에 대해 습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H)

일부에서는 추가 금액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지출 계획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기타비(피복비) 등이 사용되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함. 이는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기 보다는 아동 상황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 (H)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점, 목돈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하며 자립 준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본 점, 시범사업을 계기로 진로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고민해본 점 등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 사례대상자들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 (J)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했던 클라이언트들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까지 최소 1번 이상은 자신을 성찰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다는 기회를 가졌으리라 사료 / 자립이라는 것이 단기간, 어느 시기를 정해두고 객관화하여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삶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시범사업의 결과가 지금 당장 화려한 결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참여자 전체의 인생에서 보았을 때 분명 의미있는 기회 (J)

종결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자립정착금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음. (L)

정착금을 받은 아이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가진 목표는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자립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생활비를 지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업을 연장할 수 있었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동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H)

## 다. 아동행동평가서

아동행동평가서는 총 6명의 사례관리자들이 최대 7개월 동안 시범사업 대상자를 사례관리하며 행동변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이다.

### 1) 진학준비에 경제적인 도움을 마련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는 아동은 일정기간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으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던 대상자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거나 당분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보호종결 후에도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했는데,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어 위탁부모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음. 정착금을 통해 대입준비비용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큰 만족감을 표현함. 또한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안정적인 진로준비를 가능케 함. 정착금 및 후원금으로 대학등록금 및 학업생활보조비로 사용할 예정. 대입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가계부 작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백화점에서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정착금 지급 후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간호조무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비용부담으로 미뤄둔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하였음. 현재 종합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고 있으며, 내년 초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착금으로 국내여행과 자기계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정서적인 만족감 높음. 가계부를 소지하며 다닐 만큼 자발적으로 소비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었음. 사업 초반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

현재 평생교육원 재학 중으로 내년에 서울지역 경영학과를 목표로 편입 준비 중에 있음. 정착금 지급으로 영어 과외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계발을 할 수 있었음. 처음 계획하고 목표로 바대로 능동적으로 실천하였음. 또한 학업을 위한 노트북 구입과 가장 부담이 됐던 등록금 납부 등으로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

자립정착금 지원 전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목표하는 대학에 떨어지면서 다음 년도에 진학을 하려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음. 그러나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면서 주거비(월세) 및 생활비(공과금, 주부식비, 피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을 온전히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짐. 이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감소되었음.

자립정착금 지원 전 장래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원격평생교육원에 등록금을 납부한 상황이었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교재 및 교구비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몰라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 그러나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면서 총 등록금의 비용 절반을 충당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발생하는 생활비 등을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감소함.

직장과 공부를 함께 병행하고 싶었으나 대학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었음. 자립정착금 수령 후 등록금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교재 및 교구를 구입함에 어려움이 없었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발휘하여 진로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음. 경제적인 부분을 실제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기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음.

## 2) 자립정착금의 활용으로 인한 목돈 마련

취업 중인 대상자의 경우 급여 부분과 자립정착금을 구분하여 저축량을 이전보다 늘려 대학진학이나 주거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때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의 저축생활과 그로 인한 즐거움은 자립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책임감 있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였음. 정착금으로 생활비 및 교통비 등 지출하고 급여는 50% 이상 저축하여 대입을 위한 목돈마련 함(약400만원). 내년 대학 진학 위해 수시 원서 접수한 상태이며, 목돈마련으로 안정적인 진로 실현 가능성 높아짐. 이로 인한 정서적인 만족도 높았음.

정착금으로 등록금, 생활비 및 교통비 등 지출하고 급여의 90% 이상을 저축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 함(약930만원).

정착금으로 생활비 및 교통비 등 지출하고 급여 의 50% 이상을 저축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 함. 자립정착금으로 운전면허와 PCT자격증 취득함. 금융권 필수 자격증 시험에 준비 중이며, 자기계발을 위해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있음.

자립정착금은 주거마련에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고 급여의 일부는 조모와 친누나 생활비로 지원하고 일부는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여 현재까지 15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음.

세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 정착금 지급 전, '세상은 돈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착금을 통해 저축도 가능하게 되었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 3)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자립과정 준비

시범사업에서는 꾸준히 가계부를 작성하게끔 하여 올바른 소비습관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대상자가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지적장애 3급으로 사업 초반, 정착금 사용 및 가계부 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부분 향상됨. 사업종료 후에도 스스로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이러한 경험으로 경제관념 및 자신감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자신의 소비패턴이 어떤지를 파악하였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고쳐 나가려고 하였음. 자신이 세운 목적과 맞게 생활해나가고 있음.

## 4) 생계에 도움

대상자의 대부분은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으로 가족들의 부양자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로 인해 소득활동이 필요했으며, 자립정착금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다.

자립정착금을 통해 그동안 연체된 월세와 조모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음. 이후 7월부터 요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근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음.

올 초 보호종결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어 위탁부모(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립정착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

## 5) 주거지원

형제자매끼리 살고 있거나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주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가정위탁의 경우 보호 중 주거지원은 가능하지만, 종결이후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어 주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립정착금은 목돈이 필요한 주거 보증금의 형태로도 많이 활용되었다.

자립정착금 지원 전 성인이 된 아동이 자립 준비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 마련이었음. 또한 취업준비를 목표로 취업교육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생활비(공과금, 교통비, 문화여가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면서 주거비(보증금) 및 생활비(공과금,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정착금으로 고3 여동생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마련하여 정서적으로 만족감 높음. 비용부담으로 미뤄 두었던 운전면허(1종 보통)자격증을 취득함. 처음 사용계획서에 작성한 것들을 실천하여 성취하게 되어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낮선 사람의 접근과 도둑의 침입으로 주거 안전의 위협이 있었으나 자립정착금을 이용한 보증금 및 월세 마련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가 가능하였음

매달 30만원의 월세로 저축이 불가하였으나 자립정착금을 월세 해결을 위해 사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능하였음

정착금으로 그동안 부담됐던 월세와 조모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급여를 저축할 수 있었음. 주중에 야간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2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음. 또한 저축한 돈으로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증액함.

6) 긴급한 사고나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대상자는 갑작스럽게 일어나 사고나 비싼 치과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립정착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한 의료비를 정착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

자립정착금으로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미뤄왔던 치과치료 진행 중에 있음(견적575만원). 치아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는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자립생활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사료됨.

자립정착금으로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미뤄둔 치과치료와 생활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

그 외에도 소극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역모임과 워크숍에 모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 시범사업 평가

- 1. 사업성과
- 2. 향후과제

## IV. 시범사업 평가

### 1. 사업성과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실현을 위해 시도별, 보호체계별 상이한 자립정착금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제언을 위한 대안으로써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아동의 초기 자립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상이한 자립정착금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보호유형 또는 보호지역에 따라 초기자립의 시작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함께 자립정착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자립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2014년 3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립정착금이 미지급된 지역의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60명에 대해 약 6개월 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시범사업은 자립정착금 지원이 부재한 지역 내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다. 특히 시도별·보호체계별 차이 없이 자립정착금 5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어떤 환경에서 보호를 받았던지 똑같은 자립 환경을 제공받았고, 자립정착금으로 앞으로의 아동의 삶에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립정착금의 사용계획 및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가족에게는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대상자가 접근이 용이한 지역 내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협조관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정착금 사용 점검,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보호종결 이후 자립기반을 견고히 하고, 미래계획 및 실행을 독려하고, 올바른 소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상 보호종결되는 사유는 취업했거나 무직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을 했을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생계는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자립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마저 없는 무직자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인력손실이자 아동의 자립과정 중 방황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은 이후 안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기계발 등 취업준비를 돕는 등의 기능을 하였다.

### 2. 향후과제

본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이후 자립정착금 제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자립정착금 제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그 기준이나 지급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별·보호체계별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자립정착금 지원율이 낮다. 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형제자매) 등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에 거주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위탁가정의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부양해야 할 조부모, 친인척(형제자매) 등으로 인해 자립정착금의 쓰임이 조금은 달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기반마련이 가능한 표준화된 자립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례관리에 대한 전담요원이 부족하다. 매년 발생하는 보호종결아동은 평균 2,000명이며, 자립지원대상이 5년 이내의 보호종결아동이라는 측면에서 5년 동안 누적인원은 어림잡아도 10,000여명에 이른다. 전국의 양육시설 248개소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시설당 1명씩 배치되어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전국 48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명뿐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경우에도 전체 17개시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4명이다. 매년 발생하는 전체 보호종결아동 중 절반 정도가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보호종결아동은 71명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마저도 자립준비를 도와야 할 보호아동은 제외한 숫자이다. 모든 보호체계 내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과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지원해야 하지만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해당 시도의 자립지원업무는 전체를 지원해야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자립정착금에 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아동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 자립정착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사용을 돕는 구조가 빈약하다. 이는 자칫 보호종결 이후 자립정착금이나 그밖에 발생하는 후원금 등을 원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아동 개인의 부정적인 소비성향으로 탕진하거나, 가정위탁의 경우 이전에 수령해오던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로 사용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자립정착금의 보호가 필수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 [ 참고문헌 ]

- 남수정 · 김주란(2008).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의 돈의 의미와 소비생활만족도. 소비문화연구 11(3), p. 191-211.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신혜령, 노충래, 정익중, 이동욱, 곽유정(2012). 아동양육시설 퇴소 · 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신혜령, 이동욱, 김수진, 김보옥(2012). 위탁아동 자립준비 매뉴얼: 상담원용. 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신혜령, 한지은, 김보옥, 임아름(2013). 자립척도개발연구. 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장현선 · 허경옥(2009).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 성향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3), p.55-74.

# 부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3.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
4. 사례관리계획 및 사회관계망표
5. 사례관리일지
6. 사례발표양식

[부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름)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및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2014년 3월~2014년 12월 보유기간 : 2014년 3월~2017년 12월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당 사업에 관련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판단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및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 ①의 정보 및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 및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③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 안내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혹은 해당 정보의 보유에 대한 불필요성이 인식될 경우 사업단은 지체 없이 연구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기의 방법은 문서의 경우 파쇄, 전자D/B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공지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성명 : (인)  
법정대리인 : (인)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김예은 보조연구원 02-2127-5913

[부록 2]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사진	1. 신청자 일반사항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기입	E-mail	
	주소			
보호유형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대리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퇴소시설 주소	시/도 시/군/구
기관명		입소/위탁일	보호종결(예정)일	
거주/위탁 기간		원가족생존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형제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부모연락여부	<input type="checkbox"/> 매달 <input type="checkbox"/> 2~3개월에 한번 <input type="checkbox"/> 1년에 한두번 <input type="checkbox"/> 2~3년에 한번 <input type="checkbox"/> 연락없음			
동거인 여부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형제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퇴소선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없음			
장애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장애유형 및 등급)		질병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 )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소득 및 경제상황 (중복체크 가능)				
정부 지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type="checkbox"/> 자활 <input type="checkbox"/> 장제 <input type="checkbox"/> 해산 <input type="checkbox"/> 주거 )			
기타 지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립정착금 ( 원 ) <input type="checkbox"/> 외부후원 ( 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원 )			
CDA 적립액	총 원 (1월 말 기준)			
월평균 소득	월평균 총소득(A+B+C)	근로소득액(A)	정부지원액(B)	외부지원액(C)
	원	원	원	원
부채현황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원 )			
3. 주거 및 생활비용				
현재 주거 상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 원 ) <input type="checkbox"/> 전세 (전세금 원)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원, 월 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시설거주 <input type="checkbox"/> 기타 (거주 실태 직접 기입)			
한 달 생활비 및 지출 규모	총 원 (주거 ( ), 생활 ( ), 자기계발 ( ), 교통통신 ( ), 의료 ( ), 기타 ( )) ※ 지출 규모에 따라 항목 별 순위 책정			
생활비 마련방법	<input type="checkbox"/> 기관후원 ( 원 ) <input type="checkbox"/> 개인후원 ( 원 ) <input type="checkbox"/> 아르바이트 ( 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내용) ( 원 )			
4. 취업자 관련 일반사항 (해당자에 한함)				
직장명		월 급여	원	
직장유형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5. 진학자 관련 일반사항 (해당자에 한함)				
학교명	( ) 대학교 ( ) 학과 ( ) 학년 ( ) 학기			
학비 금액	직전학기 원			
교육비마련방법	<input type="checkbox"/> 장학금(학교 / 외부지원단체) <input type="checkbox"/> 국가장학금 I, II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랑드림장학금 <input type="checkbox"/> 본인아르바이트 <input type="checkbox"/> 친척도움 <input type="checkbox"/> 학자금대출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6. 무직자 관련 일반사항 (해당자에 한함)				
현재 상황	<input type="checkbox"/> 취업준비 <input type="checkbox"/> 진학준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위와 같이 자립정착금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부록 3] 자립계획서

자립계획서						작성일
사진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E-mail					
자립 계획						
진학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4년	학교명			전공명	
	등록금조달방안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비지정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무상 <input type="checkbox"/> 유상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장학재단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input type="checkbox"/> CDA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생활비 조달방안	<input type="checkbox"/> 아르바이트 <input type="checkbox"/> 시설후원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지정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자립정착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취업	희망직종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희망주거	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전세주택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관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인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input type="checkbox"/> 고시원(자취) <input type="checkbox"/> 친구집 <input type="checkbox"/> 귀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현재 상황						
자격증	자격분야	<input type="checkbox"/> 전문직관련 <input type="checkbox"/> 사무직관련 <input type="checkbox"/> 서비스관련 <input type="checkbox"/> 기계/장치관련 <input type="checkbox"/> 기능직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자격증명			취득여부	<input type="checkbox"/> 취득 <input type="checkbox"/> 취득예정	
학원지원	학원명	과정명			교육기간	
	학원비 부담주체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후원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모/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정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직업훈련	기관	과정명			기간	
	분야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인턴십	회사명			기간		
	분야	<input type="checkbox"/> 관리직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직 <input type="checkbox"/> 판매직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기계조작/조립 <input type="checkbox"/>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멘토	구분	<input type="checkbox"/> 퇴소선배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 <input type="checkbox"/> 기업임원 <input type="checkbox"/> 휴먼네트워크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연령	전공	<input type="checkbox"/> 학습 <input type="checkbox"/> 취업 <input type="checkbox"/> 예체능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인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부록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명	성명	소속	사 용 계 획 (세부내용 작성)		사유
						E-mail	계좌번호	
지출항목	신청금액	신청내역 및 금액	신청금액	자부담				
※ 자립을 위한 주거, 생활, 자립지원, 학업, 교통통신, 의료 등으로 지출항목을 규정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립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동자립지원사업단 귀하								

[별첨]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방법

- 정착금 지원기간인 7개월(4월~10월)동안의 지출계획을 신중히 작성함
- 사용용도에 따라 적정금액을 신청함
- 자립정착금으로 필요한 **지출금액(산출내역 포함)**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함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지급방법 결정(최종 합격자 대상으로 추후 논의)

가. 신청금액: 아동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나. 지출항목

- 생활비 : 식비 및 생필품, 공과금, 문화여가비 등
- 주거비 :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숙사비 등
- 자립지원비 : (취업과 관련된)자격증 취득비, 학원비 등
- 학업비 : 등록금, 교재비 등
- 교통통신비
- 의료비
- 기타비 : 주민세, 피복신발 등

다. 하나의 지출항목이 총 신청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예 : 신청금액 500만원 중 주거비 항목으로 250만원 이상 신청 불가)

- 초과 시, 해당 항목에 대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참여자의 상황 및 욕구에 따라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

※ 예외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액 긴급지원 요청 시 담당자 확인 후 지급 가능

라. 자부담 출처 명목 구체적으로 작성

- 자부담 명목 : 근로소득, 정부지원금, 자립정착금, CDA, 시설 및 개인 후원금 등

마. 3개 이상의 지출항목을 지출계획에 반드시 포함

바.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용처의 투명성을 확보

- 최종합격자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원칙
- 모니터링 시 자립정착금 사용 내용 점검

[부록 5] 사례관리계획 및 사회관계망표

### 사례관리계획 및 평가표

이름	사례관리자	일시	사전 척도 총점	빈도	개입 필요 영역	A	B	C
						D	E	F
사 용 계 획 (세부내용 작성)								
우선순위	장기목표	단기목표	실행계획	빈도	개입 기간	평가		
						<input type="checkbox"/> 달성( )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시정		
						<input type="checkbox"/> 달성( )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시정		
						<input type="checkbox"/> 달성( )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시정		
						<input type="checkbox"/> 달성( )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시정		

## 의 사회적 관계망표

나에게 중요 한 사람 이름	연락처	생활영역 ① 가족 ② 담당위탁 ③ 보호시설 친구 ④ 학교친구 ⑤ 기타	물질적 지지 ① 거의 없다 ② 가끔 ③ 자주	정서적 지지 ① 거의 없다 ② 가끔 ③ 자주	정보적 지지 ① 거의 없다 ② 가끔 ③ 자주	비판 ① 거의 없다 ② 가끔 ③ 자주	원조방향 ① 양방향 ② 내가 ③ 나에게	친밀감 ① 친하지 않음 ② 가까운 정도 ③ 매우 친함	접촉빈도 ① 1년에 서너번 ② 한달에 서너번 ③ 매주 ④ 매일	일고지난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5년 사이 ③ 5년이상

### [별첨]

## 사례관리계획 및 평가표 작성 방법

- 구성
  - 우선순위, 장기목표, 단기목표, 실행계획, 빈도(회/주), 개입기간, 평가의 항목으로 구성
- 사례관리계획 및 평가표를 작성할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보호아동과 담당 위커가 함께 작성하며, 보호아동과 담당 위커가 합의한 내용들을 문서 화함으로써 서로에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
  - 목표달성을 막고 있는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목표설정
- 우선순위 결정
  - 사전 척도 총점: '예'라고 답한 문항의 총합
  - 개입 필요 영역: 6가지 영역 중 낮은 점수로 개입이 필요한 부분 파악
  - 개입 필요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후 장·단기 목표 설정
- 장기목표
  - 아동 본인 스스로 인식한 욕구 또는 개인만의 독특한 욕구 제시
  - 장기목표를 작성할 시에는 아동이 말한 문장 그대로를 옮겨 적는 것이 중요
- 단기목표
  - 아동이 제시한 욕구를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작성
  - 아동의 속마음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
  - 아동과 담당 위커가 모두 납득할만한 수준의 목표로 설정
- 평가
  - 마지막으로 장기목표의 문제해결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
  - 계획했던 기간보다 연장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 사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적고 연장 되었음을 표기
  - 문제에 대한 재사정, 즉 문제에 대한 규명과 활용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한 개입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그 과정을 명확히 기록으 로 남기고 아동과 다시 함께 논의
- 사회적 관계망표
  - 아동과 위커가 함께 아동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각 빈칸에 작성한 후 그들과의 관계정 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그들의 연락처를 함께 작성
  - 관계망이 아동의 강점 및 활용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지를 통해 아동 스스로가 관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음





2014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효과성 분석 보고서

발 행 : 2014년 12월 29일 초판

發行人 원장 류호영

發行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전 화 : 02) 715-4634

팩 스 : 02) 715-4636

홈페이지 : [www.jarip.or.kr](http://www.jarip.or.kr)

편집/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66-4482

© 본 교재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